



코스피 2106.10 (+8.92)	코스닥 693.38 (+2.99)
금리 (연이자율) 1.80 (+0.01)	환율 (원/달러) 1120.10 (-0.60) (16일)



[뉴스]
제주서 사라진 예멘인
뿔뿔이 흩어져
공장 취업
02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어디로

용인 이천 vs 청주 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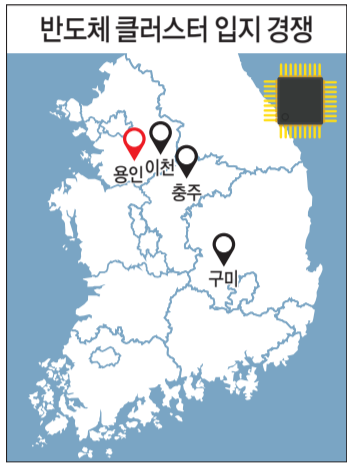
국민청원까지 동원 '불꽃 유치전'

용인
인력수급 무난, 입지도 탁월

이천
하이닉스 인접 인프라 탄탄

청주
균등 내세워... 충북도 가세

구미
공동화 위기감에 청원까지



용인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름에도 용인시는 적합하다는 평가다. 용인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갖고 있는 데다,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과 이천 등과도 멀지 않다. 인프라도 이미 충분히 조성된만큼 효율성도 높다.

이천시도 용인시와 비교해 크게 뒤지는 입지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멀지 않고, 이미 SK하이닉스 본사와 M14와 M16이 위치해 있어서 인프라도 충분하다.

그러나 청주시와 구미시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주요 산업이 수도권으로만 자리를 잡는데 따른 불만이다.

청주시는 지역 균등 발전을 내세우며 SK하이닉스 M15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어필하고 있다. 충청북도도 힘을 합쳐 유치 총력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가장 애절한 모습을 보인다. 구미 지역 기업으로 알려진 삼성전자가 최근 네트워크 사업부와 자회사 삼성 메디슨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기반 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 구미

시는 2003년에도 LG디스플레이가 과주로 이전하는 등 산업 유출을 겪어왔다.

구미시는 16일 대구시와 손을 잡고 유치를 위한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단체인 대구상공회의소,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구애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미시민들도 SK본사를 방문하는 등 공동행동을 추진 중이고,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2만 구미시민을 대표해서 간절히 국민청원을 올립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1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아직 구미시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 세제혜택 등 파격적인 조건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과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용인과 이천 등 경기도권이 유력하고, 충청도 파격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구미시가 어떤 지원 조건을 내걸지가 변수이긴 하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협뉴스

한진에 칼 빼든 국민연금 조양호 경영권 위협받나

(한진그룹 회장)

스튜어트십코드 첫 사례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늦어도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 예정된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칼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등에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기로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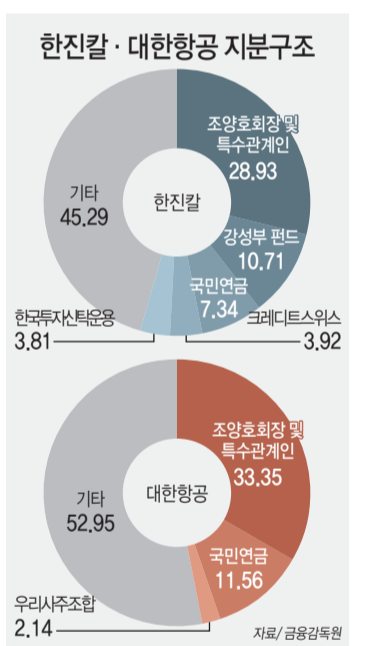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당부한 만큼 국민연금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스튜어트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으로 경영 참여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맡기고, 보고토록 했다.

이번 기금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트십코드를 도입한 이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등 기금위원이 관련 안건을 요청함에 따라 열린 첫 회의였다.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할지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 따라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



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황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 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이 3대 주인 국민연금 손에 달린 만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스튜어트십코드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폭언 폭행, 배임 혐의' 등 한진그룹 오너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친화 정책과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면에 계속) /양성문·김희주기자 ysw@

'백년가게' 을지 OB베어도 쫓겨난다

노가리골목의 터줏대감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에
임대료 소송준비 등 위기



1980년 문을 연 후 40년 가깝게 한 자리를 지키며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있게 한 을지OB베어 모습. 백년가게와 서울미래유산이란 글씨가 가게 앞에 선명하게 보인다.

/김승호 기자

'백년가게' 중 하나인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의 터줏대감 을지OB베어가 40년 가까이 지켰던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판을 내걸고 흥종학 장관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백년가게도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을지OB베어는 현재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놓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OB베어는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당시 처음으로 선정, 발표한 백년가게 16곳 중 하나다.

중기부는 이곳을 백년가게로

지정하면서 ▲오픈 당시의 맥주 안주인 노가리, 번데기, 쥐포, 멸치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사업 중인 전통 맥주집 ▲냉장숙성방식으로 특별한 맥주 맛을 유지 ▲노가리 맥주 안주를 장기간 유지해온 노가리 골목의 오랜 맥주집이자 전국적으로 노가리 열풍이 불게 한 맛집으로 평가했다.

을지OB베어는 황해도 출신인 강효근씨가 1980년 당시 생맥주

체인점인 OB베어의 서울 2호점으로 문을 연 곳이다. 지금도 간판에는 OB베어의 상징인 과란색 곰의 모습과 'SINCE 1980'이란 글씨가 오랜 역사를 가능케 한다.

을지OB베어가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오랜기간 한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도심의 골목 상권을 화려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을지OB베어를 시작으로 주변 골목에 지금까지 10곳이 훌쩍 넘

는 노가리 생맥주집이 생기면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형성, 하루에도 수 백명의 애주가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15년에 을지OB베어와 골목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또 매년 5월 중순엔 '을지로 노가리 호프 축제'가 열려 골목 전체가 불야성을 이루기도 한다.

가게 앞에서 노가리를 굽고 있던 강씨는 "건물주가 그동안 받았던 임대료의 두배를 요구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지키며 이곳에서 장사를 해 왔는데, 요구하는 임대료를 올려준다고 했어도 이미 임대차 기간이 끝난 터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주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면도로에 위치한 노가리골목내 점포들의 경우 1층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예멘인

제주서 사라진 270명... 뿔뿔이 흩어져 '공장 취업'

전남 조선소서 제주도에 연락 예멘 난민 인력 요청·업무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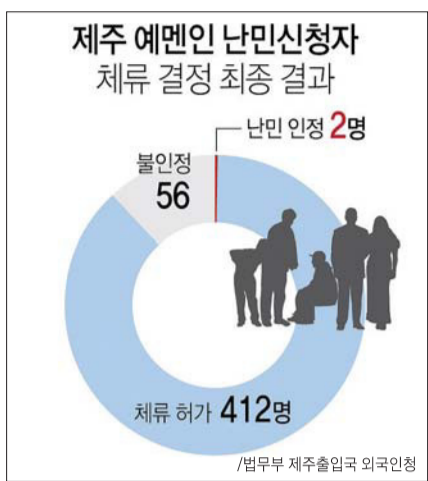
체류지 변경신고, 취업허가 받아 해당 군청선 난민 이주사실 몰라

국내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 소재 조선소에서 근무 중인 제주도 예멘 난민 근로자 100여명이 제주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륙으로 이동한 난민들은 총 270여명이다. 이들은 전남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 산하 제주도 출입국 관리소 난민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조선소 측에서 제주도 내 시민단체에 먼저 연락해 예멘 난민들의 인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응한 난민들이 전남으로 이동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제주 난민청 관계자는 "고용주와 피고



용주(난민)와의 계약이 끝나면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하고 업무에 투입된다"며 "임금수준은 200만원으로 추측되며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중 100여명은 제주도에에서 나와 현재 전남의 대형 조선업체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해당 조선소의 30여개의 협력사에서 2~3명씩 소수로 고용한 것으로



법질서 준수 서약하는 국내 인도적 체류 예멘인. /연합뉴스

알려졌다. 제주 난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내륙으로 이동한 난민들은 전남 지역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포함해 총 270여명이다.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이동한 난민들도 있으며, 주로 제조업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난민근로자들은 난민 심사 결과 후 내륙으로 이동해 모두 정상적인

로 체류지 변경신고 및 취업허가를 받은 상태다. 난민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이후 난민 신청을 하면 수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소가 위치한 해당 군청에서는 난민 100명이 이주한 사실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난민들의 이탈을 막을 뚜렷한 방안도 없는 상태다.

현재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이 넘는 예멘인 중 481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최종난민 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난민 인정 2명, 단순 불인정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했을 때 이뤄지는 직권종료는 14명으로 결정됐다.

해당 조선소 관계자는 "일감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예멘 난민들에게 함께 근무할 것을 요청하게 됐다"며 "지난 몇년 간의 조선업체 불황으로 일감이 줄어 기존 인력들은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따숨소에서 버스 기다리세요"

서울 낮기온이 영하권에 머문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강남 따숨소'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고 있다. 강남구는 이날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91곳에 조립식으로 매 겨울마다 재설치할 수 있는 찬바람 막아 구조물 '강남 따숨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두둑한 퇴직금에... 금융권 '희망퇴직' 몰려

우리, 대상자 500명 중 400명 신청 KB, 특별퇴직금 3억~4억 지급예정

KB·신한·우리·하나 4대 시중은행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문제 '도마위'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리은행은 물론 KB국민은행도 올해 희망퇴직으로 400명 이상이 집을 챙길 전망이다.

희망퇴직 대상 확대와 이에 따른 보상 이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희망대상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다. 전체 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이 80%에 달해 시중은행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17년 희망퇴직을 신청한 1000여명보다는 적지만 당시 우리은행의 실적 개선 등으로 특별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이어서 신청자가 몰린 점을 감

안하면 올해 희망퇴직자 또한 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전체 1만7600여명 가운데 2100여명이 대상이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소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3억~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 가운데 40% 안팎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과거 은행권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대폭적인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비정규직 제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KB국민은행은 전체 2만2768명 중 비정규직이 26.5%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은 전체 1만

7406명 중 25.9%가, 우리은행은 전체 직원 중 24.4%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국감 자료에 대해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만든 자료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권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그 비율이 낮은 업종이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의 경우 은행 내 청원경찰과 경비,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 통계에 포함해 숫자를 늘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은행에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자 중 재채용 된 사람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전문 변호사·세무사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또한 "은행권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해 왔다"며 "오히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본래 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의 처우 격차 문제가 불거지며 노동자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

주주권 행사 유력... 내달 초 확정

>> 1면 '한진에 칼 빼든...'서 계속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와 한진 지분 7.41%도 들고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1대 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은 각각 33.35%, 28.9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와의 연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는 한진칼 2대 주주로 10.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진 지분도 8.03% 보유 중이다.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 주주 총회에서 석태수 대표를 비롯해 조현덕·김종준·윤종호 사외이사 등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끝난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이사와 한 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탁자책임위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과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결론 등 주주권행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재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우려의 시선

한편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이 금융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진칼을 노리는 사모펀드인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0.71% 보유 중이다. 여기에 한진칼 지분은 7.34%를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가세할 경우 경제계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쌈짓돈으로 모인 국민연금이 일개 사모펀드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행동주의 펀드는 주로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식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만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 성장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성운·김희복 기자 hj89@

"백년가게만을 위한 별도방안 없어"

>> 1면 '백년가게 을지OB...'서 계속

하지만 을지OB베어의 경우 주변의 또다른 '모 호프'가 사업 확장을 위해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곳에 대해선 금융지원, 홍보 등의 정책적 지원만 가능하다"면서 "상가의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대응은 앞서 법무부가 개정, 시행에 들어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가능하지만 백년가게만을 위한 별도의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5년이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의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

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달 초 입법예고한 상태다.

퇴근 후 노가리 골목을 종종 이용한다는 직장인 이모씨는 "장사가 좀 된다고 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거나 아예 본인이 장사하기 위해 가게를 비워우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보고, 듣고 했는데 수십년간 자리를 지켰던 가게도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울만해도 서촌, 북촌, 홍대, 경리단길, 망리단길, 대학로, 성수동, 연남동 등이 특히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임차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극심한 곳으로 꼽힌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총 81곳의 백년가게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남영우 박재식 한이헌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후보에 남영우·박재식·한이헌 추천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후보에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한이헌 전 국회위원 등 3명이 모두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6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인터뷰를 통해 최종 후보 3명을 모두 추천했다고 밝혔다.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중앙회 회원사(79개사) 과반 참석에, 참석 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회장으로 뽑힌다. /홍민영 수습기자

“2년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연중유골 주고 받은 靑-기업인 간담회** “대규모 투자하면 기업 방문” 재계, 규제완화 쓴소리에 조건부 승낙 받아친 대통령

“솔직히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대통령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이 (입법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건넨 말이다. 4대그룹 총수 중 말썽다운 쓴소리로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8월 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 200곳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 법안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 보라”고 화답했다.

이 관계 법안은 문 대통령이 2016년 19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다. 공공기관 정책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최태원 SK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치를 우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의회 들어 자동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다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인 상

태다. 최 회장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진지는 오래다. SK가 사회적 기업으로 역할을 해내자고 수년째 꾸준히 강조해왔

다.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와 함께 행복한 SK를 주장하면서, 임직원들과 100번에 걸쳐 ‘행복 토크’를 갖겠다고도 약속했

정부가 기업을 좋게 봐달라는 취지로도 풀이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 친 기업 정책에 집중해달라는 의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문 대통령에 따듯하면서도 날카로운 한마디를 뱉었다. 한번쯤 삼성전자 공장과 연구소를 방문해달라는 것. 완곡한 초대 인사임과 동시에, 삼성전자는 다소 적대적이었던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문 대통령도 뼈가 있는 말로 화답했다. 대규모 투자를 먼저 하면 방문하겠다는 조건부 승낙이다. 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석방 직후 평택 2공장에 30조원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향후 3년간 4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채용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중이다.

/김재용 기자·석대성 수습기자 juk@metro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경제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홍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연합뉴스

“경제 활력 되찾는 것이 최우선 의견수렴, 정책 반영에 힘쓸 것”

경제단체장-경제부총리 첫 간담회 플랫폼 개선·수출 지원체제 등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활력 되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경제계가 지적하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기업이 쉽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활력을 되찾는 데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정부는 서포트(보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은 활성화 원년으로 삼겠다”며 “신산업과 창업은 규제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사업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력 업종 활성화 대책을 2월 말, 적어도 1분기까지 마련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과

의 접촉 면적을 더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리는 홍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단체장과 공식적으로 가진 첫 간담회다.

경제단체장들도 규제 완화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가 낮으면 한다”며 “플랫폼을 개선하고 규제(완화) 물꼬를 트는데 팀플레이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 회장은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업종·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심리가 위축됐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외에도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

2022년 수소차 8만대로... 점유율 ‘1위’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소 전 분야 아우르는 추진 전략 마련 활력 제고 필요한 4대업종 대책 모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소차 보급을 2018년 약 2만대에서 2022년 약 8만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의를 거쳐 수소경제 활성화 최종방안이 마련되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도 내놨다.

그는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원을 달성하고 AI 유니콘기업 10개, 데이터·AI 융합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센터 100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하고 AI 서비스를 지원할 ‘AI 허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AI와 데이터를 융합하는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신산업 내 12개 업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은 2030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활력 제고가 시급한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업종은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은 관광·보건·게임·물류 등 4대 업종에 과감한 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 허브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대 선도사업 가운데 중요한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 헬스에는 제도개선과 재정·세제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활성화 대책을 2월 말, 늦어도 1분기 내 마련해 하고 상반기 중

에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데이터·AI·수소경제 중기 활성화 계획까지 윤곽이 나오면서 플랫폼 경제를 위한 중기계획이 모두 마련됐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처음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는 기존의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로 ‘투트랙’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유성준 세종대 교수, 안국영 수소학회 명예회장,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 박주봉 중소기업융합재단 등이 참석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김태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은행, 실적 잔치는 끝났다... 총당금·판관비發 ‘먹구름’

8개 은행 4분기 추정순이익 1.6조
3분기비 반토막... 전년비 0.7%

추가총당금 적립→대손비용 증가
이자이익 주춤하고 非이자이익 ↓

사상 최대 행진을 거듭하던 은행들의 실적 전망이 어두워졌다. 희망퇴직에 따른 판관비 등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16일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은행·기업은행·BNK금융·DGB금융·JB금융 등 8개 은행지주의 합산 추정순이익은 1조623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3조8440억원 대비 57.8% 급감한 수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7%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시장에선 8개 은행지주의 순이익으로 2조2540억원 안팎을 예상했지만 1조원 중반선까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은행지주별 분기 순이익 추이 및 예상)

구분	17.4	18.1Q	18.2Q	18.3Q	18.4QE	(%,QoQ)	(%,YoY)	컨센서스	19.1Q
신한지주	211	858	938	848	384	-54.7	81.9	560	865
KB금융	554	968	947	954	396	-58.5	-28.5	593	930
하나금융	496	669	634	589	288	-51.1	-41.9	402	585
우리은행	134	590	716	598	195	-67.4	45.8	244	568
기업은행	256	510	422	520	261	-49.9	1.9	304	498
BMK금융	-83	207	150	182	-34	-	-	32	167
DGB금융	31	92	106	80	113	40.4	268.9	85	104
JB금융	14	64	74	73	20	-72.1	42.4	35	90
합계	1,612	3,958	3,987	3,844	1,623	-57.8	0.7	2,254	3,807

단위:십억원 /자료=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원인은 총당금과 판관비다.

전매출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확대와 희망퇴직 영향으로 큰 폭의 판관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부실채권 상각규모 증가와 국제회계기준(IFRS)도 도입에 따른 추가총당금 적립으로 대손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으로 이자이익 증가는 둔화됐고,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금융상품판매 수수료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KB금융이 4분기도 리딩뱅크 자리는 지키겠지만 예상보다 부진하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확대된 은행 성과급 1900억원과 그룹 희망퇴직 비용 2040억원을 반영하면 4분기 순이익은 기존 추정치를 30% 이상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KB손보와 KB증권도 크게 부진한 업황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지주 역시 희망퇴직과 성과급이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며, 하나금융은 희망퇴직 비용 대신 인사시스템 통합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금융이 IFRS 9 영향에 따른 대손비용 상승과 부산은행 희망퇴직 확대로 2017년 4분기에 이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총당금이 반영되는 곳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관련 은행들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우리 1100억원 ▲국민 1020억원 ▲하나 810억원 ▲부산 400억원 ▲신한 260억원 등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총당금 적립률이 98%에 달해 추가 부담이 거의 없지만

우리, 하나, 부산은행 등은 기존 총당금 적립률이 10~37%에 불과하다.

전 연구원은 “2017년 4분기 대규모 비용인식이 있었던 신한지주, 우리은행, JB금융과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따른 영업매수차익이 발생하는 DGB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순이익의 절대규모가 적어 지난해 4분기 업종합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4.2%에 그쳐 1~3분기 누적수치인 10.7%와 비교해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은행들 실적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등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이 순이자마진(NIM)을 크게 개선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총당금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를 감안하면 올해 은행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t@metroseoul.co.kr

“황금돼지해 맞아 황금돼지 한돈 쏜다”

KEB하나은행 ‘황금福돼지 드림 지정’

KEB하나은행은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오는 2월 28일까지 ‘황금복(福)돼지 드림(Dream) 지정’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의 회원인 손님이 KEB하나은행을 외국환거래 은행으로 신규 지정 후 ▲개인송금 ▲해외유학생 송금 ▲해외제재자 송금 등 건당 미화 1천불 이상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이벤트 대상이 돼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 300명에게 5000 ‘하나머니’를 제공하는 ‘하나머니 Dream’, 추첨을 통해 10명의 손님에게 황금福



돼지 한 돈을 증정하는 ‘황금福돼지 Dream’, 5월 말까지 3회 이상 해외송금 손님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 2개씩을 제공하는 ‘스타벅스 기프트콘 Dream’ 등 크게 3가지 이벤트로 진행되며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kmh@

신한銀, 서울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16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150억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225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소상공인 신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출연했던 50억원과 비교해 출연 금액을 크게 늘렸다.

한화생명 병원비·채무상환 처리 ‘유족사랑 신탁’ 출시

한화생명은 16일 고객 사망 시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가족뿐만 아니라 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해 지원되는 이번 특별 운전자금 대출은 서울시 소재 8000여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감면, 보증 한도 우대 등 혜택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운전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 초반 수준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하시 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김희주 기자

(손해보험 5사 당기순이익 전망)

단위: 십억원·%

구분	4Q17	3Q18	4Q18E				2018E		2019E		
			예상치	y-y	q-q	컨센서스	과리율	예상치	컨센서스	예상치	컨센서스
삼성화재	39	237	96.0	+148.3%	-59.5%	123	-22.1%	999	1,032	897	1,049
DB손해보험	97	152	54.8	-43.4%	-63.8%	102	-46.4%	507	560	572	625
현대해상	67	101	34.2	-48.8%	-66.1%	61	-44.0%	392	433	464	486
메리츠화재	58	73	47.8	-18.1%	-34.5%	50	-4.4%	253	259	310	300
한화손해보험	13	34	-0.5	적전	적전	8	하회	115	128	147	150
합계	273	596	232.2	-15.0%	-61.1%	345	-32.7%	2,265	2,413	2,390	2,611

/자료=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보험업계도 4분기 실적 먹구름 예상 손보 자보료 ‘숨통’... 생보는 ‘안갯속’

(자동차보험료)

손보, 車보험료 인상으로 ‘반등’
생보, 변액보증 손익 악화 ‘암운’

올해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사는 하반기부터 보험료 인상 효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생명보험사는 뚜렷한 반등요인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16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생명·손해보험 7사의 합산 순이익은 551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컨센서스 대비 생보는 8.2%, 손보는 38.2%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예상보다 높아진 차보험 손해율과 보험영업 이익 및 변액보증손익 동반 악화가 실적을 끌어내렸다”며 “손보업계의 경우 정비수가 인상분 반영과 보험료 인상 경감 효과, 생보업계는 미진한 위험손해를 개선, 낮은 위험보험료 성장률이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에 따라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5개사의 순이익(2322억원)이 컨센서스를 32.7%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손보5개사의 순이익은 2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과 영업일수(5일) 증가가 주요인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손보사 5곳의 4분기 손해율은 95.4%로 전년 동기보다 9.1%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도 차보험 손해율은 93.8%로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역대 최악의 손해율이다.

차보험 손해율의 악화는 차보험료 인가와 정비수가 인상, 사고 건당 청구액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상반기까지 손보사 실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부진할 전망”이라며 “올 상반기에도 정비수가 잔여분 인상, 최저임금 인상 중고차 보상 확대 등으로 손해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등의 기회는 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날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실적개선과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현대해상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3.9% 인상한다. DB손해보험은 3.5%, 메리츠화재 4.4%, 삼성화재 3%를 각각 올린다. 비상장사인 KB손해보험은 3.5%로 올린다.

정준섭 연구원은 “하반기부터는 위험손해율 개선, 사업비율 하락과 더불어 1월 인상한 자동차 보험료 효과로 뚜렷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만약 올해 상반기 추가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성공한다면 손해율의 전년 대비 개선 효과는 2020년에 연중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삼성생명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한화·동양·미래에셋생명 등 4개사의 순이익은 24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컨센서스를 26.4%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렌지라이프를 포함한 5개사의 순이익이 30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손해율 상승(+6.9%)과 사업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으나 일회성 매각 및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일부 환입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생보 2개사의 순이익(3295억원)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국내의 부동산 매각이익(+1700억원)과 삼성전자 지분 배당수익(+1800억원), 삼성자동차 관련 환입(+260억원) 등 비이자수익에 힘입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와 달리 생보업계는 반등요인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오진원 연구원은 “보험영업이익 정체와 증시 악화 및 장기 금리 하락에 따른 변액보증 손익 악화가 생보업계 실적 향상을 견인할 것”이라며 “올해도 장기금리 하락과 증시 변동성 확대 기조를 고려할 때 변액보증손익에 대한 보수적 가정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생보사들은 4분기부터 시작된 시중금리 하락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어려운 금융환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

헬스케어 집중... 웨어러블 강점... 위치기반 경쟁력



CES서 드러난 IT업계 로봇 차별화

삼성전자 '케어'

혈압·심박·호흡 등 건강 지속 확인

LG전자 '클로이'

가정·상업용부터 산업·의료용까지

네이버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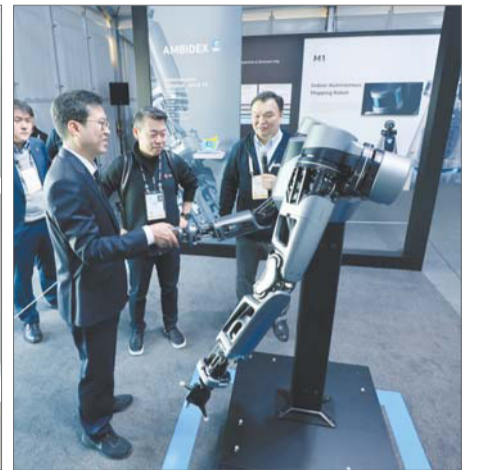
지도 강점 보유, 관련 기업과 협업



CES2019에서 삼성전자 전시관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젬스'의 시연을 보고 있다.



클로이 슈트봇.



/LG전자

CES 2019 네이버 부스에 방문한 도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네이버랩스 석상옥 헤드로부터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적용한 브레인리스로봇 '엠비텍스'의 설명을 듣고 있다. /네이버

고객 응대형 로봇, 반려 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품과 기술이 등장하면서 로봇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타 업체와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삼성 3종과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처음 공개했다. 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개발된 제품들로, 삼성전자는 헬스와 라이프 케어 분야에 집중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로봇 중 하나인 삼성 스마트 케어는 혈압, 심박, 호흡,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줄 뿐 아니라 복약 시간과 방법에 맞춰 약을 먹였는지도 관리해준다. 위급 상황에선 119와 가족에게 연락한다. 이외에도 음악을 들려주고 함께 대화를 하는 등 반려 로봇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젬스'는 근력저하, 질환, 상해 등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재활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의 거동을 돕는다. 일반인의 근력 강화에도 활용 가능한 차세대 헬스케어 로봇이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고관절, 무릎, 발목 등에 착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연내에 로봇 제품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CES 2019를 통해 산업현장, 상업공간, 물류시설 등에서 사용자의 허리근력을 보조하는 '클로이 슈트봇'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LG전자가 지난 8월 선보인 하체근력 지원용 로봇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허리를 굽히면 이를 감지해서 로봇이 준비상태에 들어가고, 사용자가 허리를 펼 때 로봇이 사용자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보조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반복되는 작업에서 사용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초 LG전자 로봇을 총칭하는 브랜드 'LG 클로이'를 론칭한 이후 최근까지 슈트봇 외에 가정·상업용에서 산업·의료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 콘셉트들을 공개하며 로봇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안내로봇, 청소로봇, 홈로봇, 잔디깎이로봇, 서브봇, 포터봇, 카트봇을 포함해 현재까지 9종의 로봇을 선보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에서 동시에 선보인 웨어러블 로봇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작업자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랩스는 CES에 처음 참가해 로봇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로봇팔 엠비텍스와 실내 자율주행 가이드 로봇 어라운드 G를 시연했다. 네이버는 지도와 관련해 강점을 보유하고 있

다. 디지털 무선통신 기술 기업 웰컴, 조정밀지도 및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도업체 히어, 위치기반 서비스 기업 포스퀘어 등 굵직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로봇은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만큼 업체 간 협업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LG전자는 CES 2019가 열리는 기간 중 네이버랩스와 공동으로 로봇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우선 LG전자의 클로이 안내로봇에 네이버의 고정밀 위치·이동 통합기술플랫폼을 적용해 로봇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랩스 석상옥 헤드는 "논의가 오간 회사들의 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우수 글로벌 기업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온라인에서 자료로 협의하는 것

과는 차원이 다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위해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어디든 출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봇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업체의 고민 중 하나는 '차별화'다. 한 업체의 로봇 사업 관련 임원은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의 로봇 외관이 유사한데 얼굴과 몸통에 화면을 달아 정보를 표현하는 로봇이 만들기 쉽기 때문"이라며 "일본에는 두 발로 뛰어다니는 로봇도 있는데 미래에는 그런 로봇들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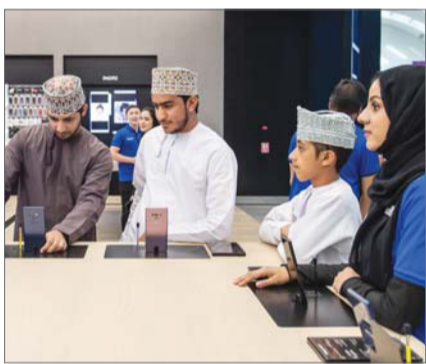
두바이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오픈

직접 체험하는 '커넥티드 리빙' 중점

삼성전자가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세계 최대 쇼핑몰인 두바이몰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를 새롭게 오픈했다.

두바이몰은 연간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쇼핑몰로, 부르즈 칼리파나 두바이 분수와 함께 두바이를 대표하는 유명한 랜드마크다.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이 전시되는 공간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품과 제품 간 연동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커넥티드 리빙' 솔루션 체험에 중점을 둔 스토어다. 이 스토어는 두바이몰의 2층 전자매장 입구에 위치하며 915㎡(300여 평)의 규모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 매장으로는 중동에서 가장 크다.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에 방문한 고객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소비자들은 TV를 비롯해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 제품과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모바일 기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제품들의 특징점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며 구매까지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OCI파워

獨 인버터제조사 영입 인수

태양광 발전업체 OCI 자회사 OCI 파워가 독일 인버터 제조사 '카코뉴에너지(쉴)'의 영입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OCI는 이번 자회사 영입 인수로 기존의 태양광발전사업 솔루션에 이어 인버터·PCS 등 제조업 기술까지 확보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인수를 통해 OCI파워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스트링인버터를 한국과 일

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또 OCI파워는 카코뉴에너지의 PCS 기술을 활용해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도 확대, 분산형 전원 시장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허기무 OCI파워 사장은 "카코뉴에너지를 인수함으로써 인버터라는 핵심 기술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대림산업, 사우디 폴리부텐 공장 투자

2022년 착공·2024년 상업운전 계획 유럽·아시아시장 공략 교두보 확보

대림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폴리부텐 공장 운영 사업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공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프랑스 토탈이 합작으로 사우디 동부 주베일 산업단지에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 들어선다.

대림산업은 이곳에 연간 8만톤의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착공해 2024년 상업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일 공장에서 범용 폴리부텐과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기술 특허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람코와 토탈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다"며 "이번 투



지난해 7월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본사에서 대림산업과 사우디 아람코, 프랑스 토탈 임직원들이 사우디 폴리부텐 공장 건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앞줄 오른쪽부터 대림산업 김길수 부사장, 토탈 모스코니 부사장, 아람코 감디 이사. /대림산업

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1993년 국내 최초로 범용 폴리부텐의 상업 생산에 성공한 이래 2010년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개발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지난 2015년 글로벌

윤활유 첨가제 1위 업체인 미국 루브리콜에 폴리부텐 생산 특허를 수출하기도 했다. 루브리콜이 생산하는 폴리부텐에 대한 독점 판매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대림산업은 연간 총 33만톤의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루브리콜의 독점판매권을 포함해 35%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전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롯데비피화학, 울산에 1800억 증설투자

롯데그룹과 영국 BP화학 간 합작사인 롯데비피화학이 울산공장에 18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증설투자를 확정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롯데비피화학은 울산공장 유희부지(2만8000㎡)에 올해 1

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800억원을 투자, 초산과 초산비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초산비닐(VAM)은 초산을 주원료로 생산된다. LCD 디스플레이용 편광필름,

태양광 소재 하우징 등 첨단 전자소재는 물론 접착제, 식품용 포장재, 담배 필터, 고기능 발포제 등 고부가 제품, 의료기, 고기능 단열재 등에 사용 가능하다.

롯데비피화학은 이번 증설투자로 연 매출 '1조 클럽'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앞서 울산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영국 BP화학 경영진과 투자 협상을 진행해 왔다. /김유진 기자

경사·자갈길·모굴 거칠 것 없다... 오프로드 끝판왕

자동차 시승기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 칸'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인상적 내리막길도 스스로 속도 조절 바뀌 떠있어도 힘로 탈출시 여유 짐칸도 넓어 레저활동 안성맞춤

"저 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쌍용자동차가 준비한 오프로드 코스는 언덕경사로, 사면경사, 자갈길, 모굴, 범피와 통나무 등으로 이루어졌다. 운전대를 잡고 코스를 마주하니 주행 중 차량이 전복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시승을 진행하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픽업트럭 렉스톤 스포츠 칸의 뛰어난 힘 지 탈출 능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지난 9일 서울 양재에서 강원도 춘천 소남이섬을 왕복하는 미디어 시승 행사를 통해 렉스톤 스포츠 칸 프로페셔널과 파이오니어 모델에 탑승했다. 국도와 고속도로를 거쳐 소남이섬에 설치된 오프



오프로드 주행 중인 렉스톤 스포츠 칸



/쌍용자동차

로드 체험까지 진행했다.

칸을 시승하며 인상적인 것은 힘로 주행 능력이었다. 언덕경사로 고점에서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후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스위치를 눌렀더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했다. 자갈길 주행에서도 큰 소음은 없었다.

이어 모굴과 범피 코스에서는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공중에 떠 있더라도 힘로 탈출 장치(LD)가 성능을 발휘해 무

난하게 험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칸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낀 것은 커다란 차체와 높은 차고였다. 칸은 전장 5405mm, 전폭 1950mm, 전고 1855mm, 휠베이스 3210mm이다. 렉스톤 스포츠칸보다 전장과 전고 휠베이스가 각각 310mm, 15mm, 110mm 늘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넉넉한 짐칸이다. 캠핑 등 여가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적재하기에 공간이 충분해 '레저스포츠

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아 보였다. 성인남성이 누워도 남을 만큼의 넓은 공간이었다.

게다가 리프팅이 적용된 파이오니어 모델의 경우 17인치 휠이 탑재됐다. 타이어에 프로페셔널 모델보다 약 6PSI가 많은 40PSI 공기압이 들어가 700kg 중량을 거뜬히 견딜 수 있다.

내부 공간의 경우 2열 좌석은 신장 180cm가 넘는 사람들이 탑승하기에는 다소

좁은 감도 있었지만 장거리를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았다.

온로드에서의 주행은 여타 SUV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차체가 높은 운전대에서의 시야확보가 잘 되었다. 가속페달을 살짝 밟아보니 묵직하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열 좌석에서 느껴지는 다소 거친 승차감과 브레이크 페달에 힘을 쥐 밟지 않으면 반응속도가 늦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노면 충격과 소음은 생각보다 잘 흡수해냈다.

칸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트림별로 파이오니어X 2838만원, 파이오니어S 3071만원, 프로페셔널X 2986만원, 프로페셔널S 3367만원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 사장은 "렉스톤 스포츠 칸은 지난 3월 출시 후 4영업일 만에 1000여대가 예약됐다"며 "렉스톤 스포츠 칸 등을 앞세워 올해 판매량 16만3000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한국지엠 쉐보레 2019 볼트EV.

쉐보레 전기차 '볼트EV' 사전계약 시동

Advertorial Corner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개발 편의성·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2년 연속 계약 개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운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EV'가 사전계약을 알리며 2019년 국내 전기차 계약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쉐보레 볼트EV는 국내 장거리 전기차 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볼트EV는 383km라는 획기적인 1회 충전 주행거리와 합리적인 가격에 힘입어 지난 2년 연속 계약 개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우며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어왔다.

볼트EV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로 개발된 전기차라는 점이다. 국내 출시된 다수의 경쟁모델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기차 모델들이다. 반면 볼트EV는 아예 전기차만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돼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반 내연기관 플랫폼과 달리 엔진룸 쪽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시보드 쪽에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차체 하부에 수평으로 배치한 배터리 패키지 덕에 돌출형 터널이 없는 평평한 2열 바닥 설계와 더불어 첨단 압축형 씰 시트(Thin seat)로 넉넉하고 편안한 2열 좌석 공간을 실현했다. 실제로 볼트EV는 경쟁 모델이 갖추지 못한 넓은 널찍한 레그룸과 헤드

룸을 제공한다.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는 차체의 무게 중심을 낮추는데 기여해 뛰어난 운동성능까지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볼트EV는 최고출력 204마력과 36.7kg·m의 최대 토크의 성능으로 시속 100km까지 7초 이내에 주파하는 순발력까지 겸해 전환경 모델임에도 뛰어난 운전 재미를 선사한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양산한 노후를 바탕으로 383km라는 충분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갖췄지만, 회생제동을 통해 실주행 시 일반적으로 주행가능거리는 더 늘어난다. 실제로 볼트EV는 출시 당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1회 충전만으로 500km에 이르는 주행에 성공해 인종거리보다 긴 실주행거리를 증명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인 볼트EV는 편의성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했다. 2019년형 볼트EV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통합되어 있던 에어컨/히터 버튼을 분리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간편하게 원하는 최대 충전량을 맞출 수 있는 충전 레벨 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또 적정 공기압 알림 기능을 탑재해 타이어 공기압 주입 시 적정 공기압에 이르면 소리와 점등으로 알려주는 등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했다. 쉐보레는 볼트EV 고객의 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해 볼트EV 서비스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볼트EV 고객들은 수도권 22개소를 비롯한 전국 총 58개소의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코나EV로 싱가포르에서 카셰어링 시작

동남아 첫 전기차 호출 서비스 그램 측에 코나EV 20대 공급

현대자동차는 그램이 최근 코나EV를 활용한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를 활용해 혁신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이번 서비스 론칭을 위해 코나EV 20대를 그램 측에 공급했다. 그램은 연내 총 200대의 코나EV를 구매할 계획이다.

그램은 코나EV 20대 모두를 소속 운전자에게 대여 완료했다. 그램 드라이버는 그램 측으로부터 코나EV를 대여한 뒤 현지 고객에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낼 예정이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하루 대여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는 80 싱가포르 달러(약 6만6000원)로 책정했다.

코나EV는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 충전 걱정 없이 서비스 제공



그램렌탈 싱가포르의 카우 이 밍 대표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대차

이 가능하다.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30분내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그램 드라이버들의 일일 평균 운행거리는 200~300km다.

전기차를 활용한 카셰어링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싱가포르 굴지의 전력 공급 업체인 싱가포르파워그립도 협력에 나선다. 싱가포르파워는 그램 드라이버들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30% 저렴하게 차량을 충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그램과의 이번 협업으로 동

남아 전기차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 시장 선점의 기회를 갖게 되는 동시에 전기차 모델에 대한 고객 경험을 강화해 혁신 기업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11월 그램에 총 2억5000만 달러를 전략 투자하고 그램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전기차 모델을 활용한 신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연우 기자

벤츠, 3세대 밴 '뉴 스프린터' 국내 선보

다임러트럭코리아는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밴 3세대 '뉴 스프린터'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스프린터는 지난 1995년 1세대 출시됐으며 2세대 스프린터는 2006년에 출시됐다. 이번 3세대는 13년 만에 풀체인지된 모델이다. 차량 중량은 3~5.5톤으로 제작됐다. 용도에 따라 길이(4가지)와 높이(3가지)를 조합해 변형할 수 있다.

국내에는 뉴 스프린터 투어러의 319CDI와 519 CDI 총 2개 모델이 출시된다. 파워트레인은 3리터 OM642 V6 디젤 엔진이 7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최고출력 190마력과 최대토크 440Nm의 성능을 낸다.

그동안 승용차나 트럭에만 장착되던



메르세데스-벤츠 '뉴 스프린터' 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다양한 안전사양 보조시스템도 대거 추가됐다. 차간거리 조절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능동형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사각지대·측풍 어시스트 등이 탑재됐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도 기본으로 장착된다.

/정연우 기자

현대차 설 연휴 시승 이벤트 아반떼 등 250대 지원

현대자동차는 설 연휴를 맞아 총 250대의 귀성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7박 8일 렌탈 시승 이벤트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벤트 당첨 고객을 대상으로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그랜저, 코나, 투싼, 싼타페 등 총 250대의 차량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오는 23일까지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응모 고객 중 당첨자 250명을 선정해 오는 29일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BNK 금융그룹

구글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BNK오토모아'를
검색하세요

새 차 같은 중고차만

모아 모아 BNK 오토모아

허위 매물은 No! 보상 서비스는 Yes!

온라인 중고차의 신세계 - BNK오토모아

**안전한
헛걸음 보상 서비스**

허위 매물일 경우 보상 OK
(헛걸음 보상 마크 부착차량 온라인 예약 방문시)

**확실한
환불 보장 서비스**

구매 후 3일 이내 환불 OK
(환불 보장 마크 부착차량)

**길어진
연장 보증 서비스**

최대 1년/2만km 보상기간 무료 연장 OK
(연장 보증 마크 부착차량)

www.bnkautomoa.co.kr

BNK 캐피탈

준법감사인 심의필 No.2018-059(2018.02.02)



한국투자증권
17일 주식투자 세미나

한국투자증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한국투자증권 신도림 지점에서 개인투자자 대상 '2019년 주식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투자증권 신도림지점 한국남 팀장이 '2019년 주식시황 및 박스권 매매전략'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투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한국투자증권 신도림지점으로 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LG생건 기초자산 ELS

키움증권은 16일 LG생활건강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출시했다. 청약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다.

'제916회 ELS'는 LG생활건강보통주와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지는 스텝다운 유형의 상품이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12%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세전 36%(연 12%)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손임지 기자

신한금융투자
'킹스리그 시즌1' 개최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및 해외 주식 실전투자대회인 '킹스리그 시즌1'을 개최한다.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 '킹스리그 시즌1'은 동시에 참여 가능한 국내 리그, 미국리그, 중국리그로 구성되는 실전투자대회이다. 매일 각 리그 수익률 1위에게는 순금돼지 3돈(11.25g)을 상품으로 증정하며 리그 별 수익률 100위까지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전체 리그에서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 투자자에게는 순금돼지 2돈(7.5g)이 주어진다. 국내리그, 미국리그, 중국리그는 '리그별로 100만 원(US 900달러, 6,000 위안)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및 '신한아이 알파' 모바일 앱에서 '킹스리그 시즌1'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경상이익 1조 달성 키워드는 ‘고객 가치’”

새해 새 전략... 쏘앗
(So What)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작년 3분기 누적순익 전년 연간 초과 실적 '사상최대' 자기자본 5조 넘어

창립 50주년. NH투자증권이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의 실적은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미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도 연간 순이익을 초과했다. 자기자본은 5조원을 넘어섰다. 치열한 초대형 투자은행(IB)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탄(자본)을 장전해 놓은 상태다.

◆“5년 내 경상이익 1조 달성할 것”

NH투자증권의 지난 50년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했다. 회사의 뿌리는 1969년 12개 보험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보증권이다. 당시 자본금 규모는 1억2000만원. 국내 최대 증권사였다. 이후 1975년 생보증권을 흡수 합병해 대보증권으로 거듭났다. 대보증권은 합병 첫해 자본금을 30억원으로 늘리며 대형화에 앞장섰고, 1979년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해 대형 증권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

럭키금융그룹의 계열사 럭키증권은 1983년 대보증권을 흡수 합병했다. 1995년 그룹 브랜드 방침에 따라 LG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99년 LG종합금



NH투자증권은 16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 역사(社史)를 발간하고 전 임직원에게 배부했다. 정영채 사장(오른쪽)이 본사 영업부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직접 사사를 전달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융과의 합병을 통해 LG투자증권으로 거듭났다.

LG투자증권은 2003년 카드대란 위기로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됐고, 2005년 4월 우리증권과의 합병으로 우리투자증권이 정식 출범했다.

2014년 말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되면서 지금의 NH투자증권이 출범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우리투자증권의 균형잡힌 사업 포트폴리오에 NH농협금융의 강점인 유통망이 합쳐져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금융기관으로 거듭났다.

2017년 11월에는 자기자본 4조원의 요건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됐다.

2018년 3월, NH투자증권을 IB 명가로 이끌던 정영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5월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했고, 7월에는 주택도시금융 전담운용사로 선정되어 4년 동안 약 19조원 가량의 자금을 위

탁 운용하게 됐다.

정 사장은 취임 당시 “5년 내 경상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분의 수익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정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세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효과적인 자본 배분과 경영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운용자산의 수익성 제고다. 둘째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 및 영업활동을 강화해 과정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마지막은 디지털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본사 업무 효율화다.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는 간소화하고 이를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회사 자체로는 '자본시장의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Platform Player)의 완성'을 약속했다. 플랫폼 플레이어의 완성이란 자산관리가 필요한 개인고객과 더 좋은 투자대상을 찾는 기관고객, 다양한 재무적 고민을 가진 기업고객 모두

가 NH투자증권이란 플랫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얻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가치가 최우선”

정 사장은 “과거 고객은 증권업을 위탁매매(주식 중개)업을 하는 단순 중개업자로 봤다면 지금은 파생결합증권, 해외주식 등을 사고,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계좌(CMA)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 보고 있다”면서 “훌륭한 플랫폼에 고객이 몰려들고 자본이 집중돼 더 많은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각 사업부문이 최고의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B출신인 정 사장은 오랜 영업활동으로 고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다. 경상이익 1조 달성 목표를 위한 키워드 역시 ‘고객 가치’에 바탕이 짝했다. 정 사장의 지론은 ‘금융투자업의 본질은 돈이 아닌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다.

신년사에서 정 사장은 “고객은 증권업의 근간이자 우리의 존재이유”라며 “회사 위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던 관성을 탈피하고 고객의 니즈를 먼저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에게 집중해야 한다”면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우리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임지 기자 sonumij301@metroseoul.co.kr

글로벌 ESG펀드 날개 달았는데... 韓은 걸음마 수준

세계적 자산규모 1조500억 달러

“韓, SRI펀드 성장·투자유입 위해 기업의 ESG정보 제공 확대해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한 투자자가 늘면서 글로벌 ESG 펀드가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ESG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펀드의 운용 자산규모는 2012년 말 6550억달러에서 2018년 10월 말 1조500억달러로 약 60% 성장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탄소 배출량 등 환경적 요소나 지

배구조에서 소수자 비중을 늘리는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투자를 뜻한다.

◆ ESG 투자 ↑ ...유럽이 시장 견인

국제적으로 자산운용 산업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ESG 성장세는 앞으로 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도 118개의 공적연금, 사적연금,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4%가 투자 시 ESG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0%는 향후 4년 내에 ESG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럽은 글로벌 ESG 시장의 가장 큰 손이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유럽의 ESG 펀드 운용자산은 6300억유로다. 이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은 3000억달러 수준의 ESG 펀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로리 키스 파르나소스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는 포춘US의 2019년 투자자 가이드에서 “기업의 긍정적 사회공헌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 韓, 아직 초기 단계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의 ESG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수익률 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ESG 투자는 주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전체 SRI 펀드 순자산은 약 8조원으로 전체 공모펀드 순자산인 218조원의 약 3%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SRI 펀드 순자산도 약 7조 2000억원에서 8조원 규모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수익률도 좋지 않다. 국내 SRI 펀드의 설정액 상위 10개 펀드 중 연초 이후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웃돈 곳은 2곳 뿐이다.

국내 SRI 펀드 시장이 성장하고 ES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투자자 유입이 급선무다. 특히 이를 위해 ESG 자료제공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경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기업의 ESG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SRI 펀드에 대한 객관적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ESG 투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ESG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

/배한님 수습기자 ericabae1683@



금융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중구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네번째)이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금융위원회

“글로벌 핀테크 기업 나올 수 있게 지원”

최중구, 핀테크 간담회 개최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나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중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500명 내외의 핀테크 업계 종사자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후 진행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정부의 올해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사업에 한해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사전신청을 받아 4월 법 시행에 맞춰 우선 심사대상 혁신서비스 중 5건 내외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미래보다 현재 즐기기’... 비싼 ‘종신’ 1만원 ‘실손’

(보험)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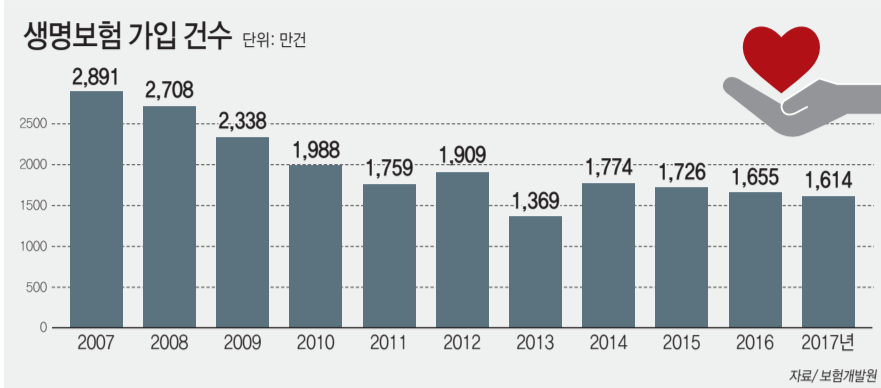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와 금융

보험에 부는 울로 바람

미래보다 오늘 대비하는 움직임 ↑
비싼 보험료, 밀레니얼 세대 큰 부담
간편 가입절차·실속형 보험 선호

직장인 김 모씨(35)는 아직까지 종신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없다. 미래에 있을 위험을 대비하기엔 매달 1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다. 대신 김 모씨는 10만원 가량을 운동하는데 쓰기로 마음먹었다. 김 모씨는 “적은 월급으로 원룸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하다”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보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겨울시즌 스키 시즌권(정액권)을 끊은 손 모씨(29)는 스키장을 가기 전 모바일을 통해 스키보험 하나를 가입한다. 하루 1500원대 보험료만 내면 스키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모씨는 “보험회사에 연락했으면 이보다 비싼 실비 보험을 추천했을 것”이라며 “비용이나 보장면에서도 필요한 보험에 일



시적으로 가입하는게 효율적이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올로(you only live once)’.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을 살라는 이 단어는 흔히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를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미래에 투자하기 보단 현재를 즐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성향이 최근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생명보험 가입보다는 오늘을 대비할 수 있는 1만원 내외의 미니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찾고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해야 하는 보험업계는 저렴한 가격에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과 편리

성을 추구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1614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40만5617건 줄고, 지난 2007년에 비해 1276만건 이상 줄었다. 2030세대의 생명보험 가입건수도 하락세다. 2016년 20대의 생명보험 보유계약건수는 722만 6590건으로 전년 대비 1만3265건 줄었다. 30대 생명보험 가입건수도 2014년 1513만4952건에서 2015년 1463만 7060건, 2016년 1316만5214건을 기록해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의 보험 가입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비싼 보험료’가 가장 먼저 꼽힌다.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실손

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하나씩 가입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출할 보험료도 빠듯하다”면서 “생명보험은 가입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고 했다. 보험 가운데 1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들어가는 생명보험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보험가입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 설계사를 통한 면대면 상담보다 빠르고 간편한 가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보험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일시적인 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1만원대 보험, 밀레니얼 세대 공략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앞다퉈 미니보험을 내놓고 있다. 미니보험은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소액인 상품으로 소액 단기보험으로도 불린다. 대부분 보험기간이 1회성이거나 1~3년으로 짧다.

특히 비대면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보험업계는 주로 다이렉트 보험(온라인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설계사 채널대비 15%까지 보험료가 저렴해 밀레니얼 세대 고객확보에 유리할 수 있어서다.

대면하거나 전화로 보험금을 청구하던 방식도 줄이고 있다. 지문인증 등으로 간단하게 계약조회, 증명서발급,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과 연동해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싸도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골라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보험가입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간편 송금앱 토스도 실속형 미니보험을 출시해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여러 가지 보장을 넣은 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입하게 해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스관계자는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위주로 구성했다”면서 “비용면에서 부담없고, 빠르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김용덕 “새 상품·손해보장 기법 개발... 인슈어테크 개척”

(손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기자간담회

맞춤형 보험 등 신비즈니스 모델 확립
책임 보장 강화 등 실천 혁신과제 꼽아

손해보험협회는 새로운 상품과 손해보장 기법을 개발해 신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것을 올해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김용덕 손보험협회장은 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전통적인 영업 방식과 서비스로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맞춤형 보험과 인슈어테크 등 새 비즈니스 모델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 불안 등으로 신규 보험가입이 정체되는 등 저성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고, 경영 불확실성 확대 및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행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지난 2017년 4.5%에서 올해 2.7%로 떨어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신규 보험가입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손해보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을 유지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경영 불확실성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알고리즘,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손보험협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천 혁신과제로 ▲맞춤형 보험서비스 창출 ▲인슈어테크 활성화

▲배상책임 보장 강화 ▲국제화 지원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손보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한정된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하다 보니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이라며 “기존 상품과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과 똑같이 영업해서는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처 다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이라든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트렌드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

로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며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업계와 같이 고민하고 당국과 협의하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손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이나 생활밀착형 소액 간단 보험 등의 시장활성화를 추진하고 4차 산업기반의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 불만이 예측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누수되고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손해보험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손해보험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비급여 의료제도, 요양병원의 정상적인 운영 등도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자기자본 40억 → 15억으로 낮춘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업을 할때 필요한 자기자본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자본이 많지 않은 소규모 펀드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를 폐지해 투자일임업 자기자본요건인 15억원을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할 수 있지만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의 투자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운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업체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월17일~2월26일),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57억 ‘꿀쩍’... 18명 적발

크레인 현장 관리자 A씨(43)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으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지급률 100% 받아 보험금 10억1000만원 받았다. 이후 A씨는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차례 교통사고를 내 추가로 19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

아 장해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18명 중 17명(94.4%)이 남성이고, 40~50대가 13명(72.2%)에 달했다. 이

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18명 중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전체의 61.1%, 보험금은 각각 19억7000만원, 19억5000만원으로 총 보험금의 69.1%를 차지했다.

이들은 마비와 척추장해가 보험금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해 평가 시 점과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험사기에 악용했

금감원, 수사기관에 의뢰
1인 평균 3.1억 보험금 수령

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서류, 보험사기 입증 자료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허위 장해진단자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희주 기자 hj89@

반도체, 하강 사이클 보다 中 추격이 더 걱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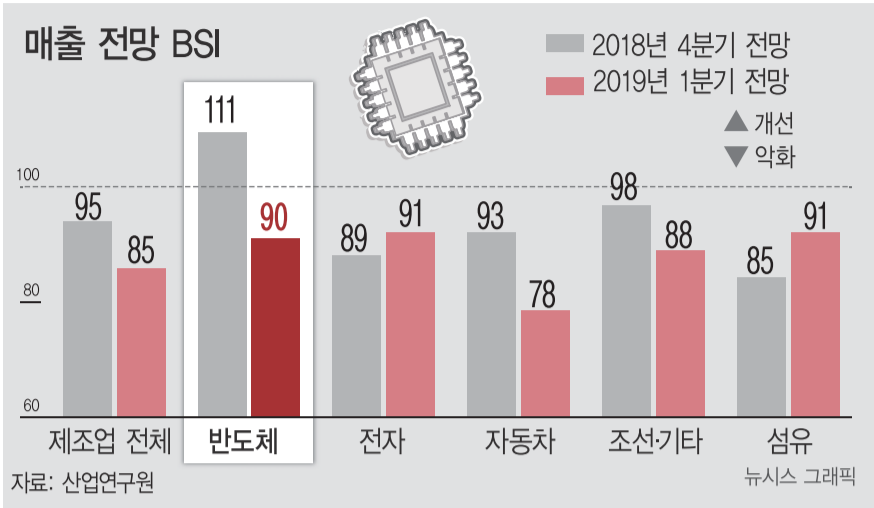
R의 공포

③ 반도체까지 드리운 그림자

中, 이미 디스플레이·폰 추월 5년 후 반도체 시장도 위협 GDP 2.6%→2.5% 하락 우려 한국, 특정 산업 의존도 높아

#.반도체 부품업체 A사. 지난해 반도체 호황덕에 그나마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걱정이 많다.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 업체 최고경영자 A씨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890억달러(약 545조원)로, 지난해(4770억달러)보다 2.6%(가트너)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있다. 그렇다고 선뜻 투자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단가 인하 압력이 걱정이라고 했다.

위기속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3%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작은 개방경제)’라는 한계 때문에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해 2018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20년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악화되는 외부 수요, 글로벌 금융 긴축 환경 등을 꼽았다. 글로벌 경제와 동떨어져 나홀로



강한 성장을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갈수록 기업들의 체력은 고갈되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 하강

1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5곳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30조4262억원(삼성전자 10조8000억원, LG전자 753억원)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들 영업이익은 2017년 4분기(32조8557억원)보다 7.4% 하락했다.

영업이익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1분기 105곳의 영업이익의 합계는 33조7316억원으로 작년 1분기(36조9553억원)보다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8.4%,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동력인 제조업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019년 10대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 제조업의 진짜 문제는 경쟁력 약화로 주요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과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나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반도체의 경우 5년 후면 중국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제조업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40% 수준에서 최근에는 60%대로 치솟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주요 산업의 2019년 설비투자율과 수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설비투자 상위 10개 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의 6.4%보다 낮은 2.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수출 상위 9개 산업의 2019년 수출은 올해보다 3.0% 증가하는데 그쳐 2018

년의 5.7%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철강 등은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둔화를 우려한다. 소시에티제너럴(SG)은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수출 감소(9월 124억 3000만 달러, 12월 88억 6000만 달러)는 물량감소를 동반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클레이즈는 올해 국내 성장률이 2.6%에서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GDP 대비 경상수지도 4.2%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제조업 활력 ↓, 부패, 정책실패...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활력을 잃은지 오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제조업 신진대사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신생률은 2006~2010년 연평균 18.1%에서 2011~2015년 14.9%로 떨어졌다. 신생률은 전체 활동 기업 중 새로 생긴 기업의 비율로, 이 수치가 떨어졌다는 건 시장에서 ‘새 얼굴’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기업에서 사라진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멸률 역시 같은 기간 11.7%에서 10.1%로 하락했다.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친 교체율은 2011~2015년 연평균 25.0%로, 독일(53.8%)이나 미국(46.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장균 수석연구원은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겨나는 동시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퇴출이 용이해 산업의 변혁이 이뤄진다”며 “신진 기업은 즐기고 기존

기업은 능력과 상관없이 생존을 지속하면서 생산성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왜 기업실적이 떨어지고, 제조업이 뒷걸음치는 것일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같은 부패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패 보고서’는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014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Rent Seeking·렌트 시킹) 행태가 경제의 효율성을 막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렌트 시킹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부의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근로자 임금을 높여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확대→내수 활성화→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경제 성장→임금 상승→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노동비용 증가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실업이 늘면서 내수가 팽팽 얼어붙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韓美 실업률 역전... IMF 이후 처음

한국 4.0%... 미국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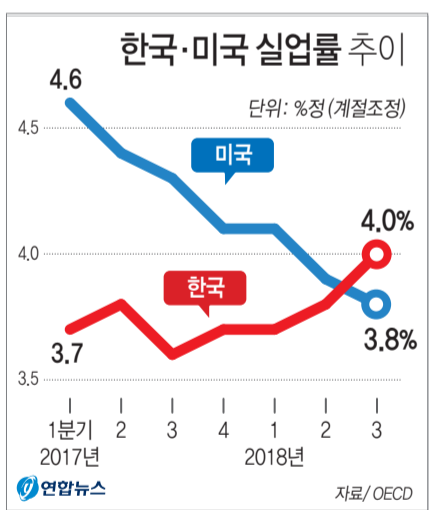
한국에는 고용 한파가, 미국에는 고용 혼풍이 계속되면서 한미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

선진국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실업률 역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4.0%로 전분기(3.8%)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미국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을 하회했다.

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4.6%, 미국은 4.2%였다.

/연합뉴스

한은 “브렉시트 부결, 시장 영향 제한적”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모니터링 강화

한국은행은 16일 오전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진호 금융시장 담당 부총재,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이승현 국제국장, 이상형 금융시장국장, 김현기 공보관, 박광석 투자운용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은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보험세를 보이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15일(현지 시간) 정부가 EU와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승인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 차로 부결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 부결로 향후 브렉시트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국내 車 2300만대 돌파... 국민 2명당 車 1대

국토부 등록대수 5년간 감소세

국민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신규 등록된 국산차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20만2555대로 전년 대비 3.0%(67만 4000대) 늘어났다. 인구 2.234명당 자동

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14년 3.7%, 2015년 4.3%, 2016년 3.9%, 2017년 3.3% 등으로 2~4%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국토부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지원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도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 워크숍도 개최한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지난해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역개발 성과평가를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안경은 으뜸50안경에서 하자!



Event

수입 브랜드 누진다초점 신제품 할인 행사

엑셀라이트 누진다초점

① 아시오 플러스 1.50 중굴절
~~300,000원~~ → **99,000원**

② 아시오 프로 1.50 중굴절
~~400,000원~~ → **129,000원**

Event

으뜸 50안경 안경렌즈 대폭 가격인하

1.56 중굴절 ~~6,000원~~ → **4,000원**

1.56 중굴절 비구면 ~~10,000원~~ → **6,000원**

1.60 고굴절 ~~13,000원~~ → **9,000원**

1.60 고굴절 비구면 ~~17,000원~~ → **10,000원**

1.67 초고굴절 비구면 ~~26,000원~~ → **20,000원**

Event

오클리 선글라스 창고대방출 특별행사



① **OAKLEY** 레이다락 패스
RADARLOCK PATH

~~365,000~~ → **146,000원**
(균일 판매가)



② **OAKLEY** 홀브룩
HOLBROOK

~~240,000~~ → **99,000원**
(균일 판매가)

* 정품 품질 보증

위기의 케이블TV, 대화형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금요일 저녁, 혼밥을 즐기다가 리모컨을 향해 “볼 만한 TV 프로그램 틀어줘”라고 말을 건다. 인공지능(AI) 리모컨에 전달된 음성엔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셋톱박스(STB)로 입력돼 요리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병원과 제휴한 프로그램을 통해 TV로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몸 상태를 알아보기도 한다.

보는 TV에서 대화형 플랫폼으로 거듭난 케이블TV가 제공할 가까운 미래 모습이다. 케이블TV가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환경(UI) 등 신기술로 시청자 삶의 환경을 바꾸는 등 대화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는 지난해 1월 단말기 종류와 기능에 구애받지 않는, 고객 시청패턴 분석 등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 ‘알래스카’ 플랫폼을 개발해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TV시청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래스카’는 현대HCN을 시작으로 향후 타 케이블TV 사업자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J헬로는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자체 개발해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도 개시했다. 향후 AI 스피커 사업자와도 제휴할 계획이다.

티브로드도 지난달 자체 클라우드 UI를 도입

CJ헬로, 단말기 상관없는 플랫폼 개발 티브로드, 자체 클라우드 UI·UX 개발 딜라이브, 저사양STB 반응속도 개선 CMB, IoT·모바일 등 미디어 연동 가능 KCTV제주방송, 고해상도 그래픽 초점

했다. UI 이동속도, 주문형비디오(VOD) 리스ٹ 로딩 속도 등을 향상했고, 1080p 풀 고화질(HD)을 제공한다. 실시간 채널 시청률과 프로그램 시청 추이, VOD 시청 이력 등 고객이용패턴과 성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반영하는 UI·UX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생각이다.

딜라이브는 지난 2015년 6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UI를 도입했다. 저사양 STB에서도 UI 반응속도가 개선 가능하고, 데이터 로딩과 화면전환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게 특징이다. 최근에는 AI스피커인 ‘키카오미니’와 연동해 대화형 TV 시청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현대HCN은 지난달 시청 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형 클라우드 UI’를 전면 도입했다. 이번 맞춤형 UI는 CJ헬로의 ‘알



모델들이 CJ헬로의 ‘알래스카’ 음성AI 리모컨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CJ헬로



티브로드 클라우드 UI 마이홈 화면. /티브로드

래스카’ 기술에 시니어모드, 카카오페이와 H포인트를 이용 가능한 복합결제 등 현대HCN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됐다.

시니어 모드 선택 시 글자크기가 2배 이상 커지고, 키즈모드 선택 시 캐릭터 위주 화면 구성으로 바뀌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구현이 특징이다.

CMB는 지난 2016년 7월 클라우드를 접목한 ‘클라우드 풀 UI’ 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른 화면 전환과 STB외에도 사물인터넷(IoT) 단말, 모바일 등 다양한 미디어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



이 특징이다.

특히 별도 케이블 없이 와이파이 STB를 통해 가입자의 휴대폰 화면을 TV에 재생할 수 있는 스크린 미러링 기능도 갖추고 있다. 향후 CMB는 빅 데이터와 T커머스 등 광고 플랫폼과 연계한 기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KCTV제주방송은 지난달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UI ‘알바트로스’를 도입했다. 알바트로스는 ▲고해상도 그래픽 ▲순수한 검색 및 자동 추천 ▲간편 메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키즈모드를 추가해 어린이들의 해로운 콘텐츠 접근을 막고 일정 시간, 일정 편수만 볼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시청 환경을 구현한다. 향후 방송과 모바일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T, 일반고객도 체험 가능한 ‘5G 버스’ 운영 KT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일반 고객의 5G 체험을 위해 준비된 ‘5G 버스’를 공개했다.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탑재한 ‘5G버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광화문,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운행된다. 이날 5G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5G 통신으로 제공되는 가상현실(VR) 등의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민자고속도로 협약 변경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유료도로 공공성 제고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료도로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법 개정(2018년 1월 16일)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

준’을 제정했다.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 평가를 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 0.01~3%)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공익을 위해 기존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혼자서도 즐거워 ♪”... ‘1코노미’ 뜬다

편의점, 1인가구 겨냥 설 선물 판매 호텔, ‘힐링’ 소비자 패키지 마련

1인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관련 마케팅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소포장·소용량 제품이 흔해지고, 기존의 틀을 깬 상품·패키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혼자 사는 인구가 3가구 중 1가구 꼴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대가족에서 4인 가구로, 이젠 1인 가구를 위한 ‘1코노미(1인과 경제의 합성어)’ 마케팅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은 1인 가구수가 지난 2017년 556만 가구(28.5%)에서 2025년 670만 가구(31.9%), 2045년 809만 가구(36.3%)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코노미’ 마케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편리성, 신속성이다. 또한, 가격보다 상품의 퀄리티를 높여 소비자의 만족감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같은 트렌드는 유통업계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1인 가구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이다. 제품의 현대나 콘셉트, 관련 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

날개 포장으로 1인 가구의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한편, 1인 가구 트렌드를 겨냥한 할인·이벤트도 수시로 진행된다. 이뿐만 아니라, 배달 서비스를 강화해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CU의 경우, 최근 배달서비스업체 요기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의 ‘나혼자잔다’ 패키지.



GS25의 클래식 오디오 턴테이블. /각사

와 손잡았다.

최근 몇 년간, 설 선물 세트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돋보인다. 수산, 청과 등 전통 상품이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지만, 1인 가구나 젊은층을 겨냥한 상품들이 ‘설 선물 세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GS25는 올해 설을 맞아 20~30대 젊은층을 위한 콘셉트 스텝, ‘나심비(내 마음의 만족감을 위해 지갑을 여는 소비 심리)’ 추구 고객을 겨냥한 520여종의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클래식 오디오 턴테이블, 액션캠, 드론, 닌텐도 스위치 등도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명절 베스트 상품인 정육 상품을 1인 가구에 맞게 소용량으로 내놨다. 1인 가구를 위한 가전제품인 미니 의류 건조기나 에스프레소 머신, 에어 프라이어 등을 판매한다.

‘1코노미’ 마케팅의 또 다른 격전지는 바로 호텔이다. 호텔들은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패키지를 선보이면서 동시에 1인 가구 고객을 위한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주 52시간제 등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제품뿐만 아니라 여

유, 힐링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텔들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1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곁들여 독자적인 콘셉트의 패키지를 내놓는데 집중하고 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의 ‘나 혼자 잔다’ 패키지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간 진행된다. 타임스퀘어 몰 내에 위치한 CGV 영등포에서 ‘혼영(혼자 영화보기)’을 하고, ‘슬로우랩(SLOWLAB) 꿀잠안대’로 숙면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삼성동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리프레시 마이셀프 패키지(Refresh Myself Package)’는 명절 휴가를 즐기고 싶은 싱글족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다. 호텔 측에 따르면 지난 추석에 첫 선을 보인 1인 패키지는 예상 대비 약 3배 이상 판매됐다.

메이필드호텔의 1인 패키지 ‘휴일(休日)’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포미(for me)족’, ‘올로(YOLO)족’을 겨냥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송영길이 쏘아올린 ‘탈원전’ 여야정쟁... 공론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자력·화력발전 중단 검토해야”
靑 “송의원 주장, 이미 정리된 사안”
野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

청와대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탈원전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야권이 가세하는 형국이 갖춰졌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권 발 불협화음은 여야 정쟁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여권발 탈원전 정책 이견 표출은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본격화됐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



미세먼지로 뒤덮인 국회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거처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

들었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송 의원은 청와대 주장을 재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고 운을 뗀 후 “(다만)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조

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신규 원전이라도 안정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지가 70%인 국토에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김 대변인이 주장한 공론화위 관련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집중된 위원회다. 신한울 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탈원전 기조 유지를 언급한 청와대에 송 의원이 소신 발언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송 의원이 탈원전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야권도 가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우리 탈원전 정책은 반환경 정책”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종광 청와대 교수 초청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 조찬간담회 때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안 바꾼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탈원전 정책 공론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탈원전 행보에 민주당은 견제구를 던졌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나 원내대표 발언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경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여권발 탈원전 정쟁이 여야정쟁으로 이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탈원전 정쟁 관련 여론 반응 살피기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원전 정쟁은) 언론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확답을 피했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황창규 “화재 피해상인 적극·전향적 보상”

(KT 회장)

과학기술방송위, 보상 등 질타
“소상공인 피해 보상규정 없어
방화·테러 가능성도 염두해야”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사고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보상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 회장은 통신구 화재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약한 통신구나 전신구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부실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 회장이 KT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이후 예방조치 미흡, 통신구 관리감독, 사후 보상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질타를 퍼부었다. 이번 통신구 화재사고가 기반시설을 마비하는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추후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AT&T는 배상금을 산정할 때 중재합의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원하고 영국의 브리티시텔레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과 황창규 KT회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콤은 추가 보상 청구도 허용한다”며 “이번 사고 기간 동안 소상공인 평균 결제액이 줄었지만 이를 보상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통신 시설에 등급 조치가 있었고 관리도 되지 않았다”며 “손해액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는데 약관에 따라 청구에 의해 협의해 배상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회장은 “피해지역에서 한 달 넘게 직원들과 소상공인 이야기를 듣다”며 “KT도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 만큼 보상 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openness 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KT,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했다.

통신구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 ‘PD수첩’의 방송을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에 차 있고 정화조와 연결되기도 했다”며 “시설 점검을 위해 물을 양수기로 다 퍼내야 하는데 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은 실적 위주의 수익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통신 케이블을 예시로 들고 “현장에 있는 케이블과 같은 것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강한 화력에서도 잘 견디더라”며 “이 정도 화력을 견디는 난연 케이블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방화나 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KT가 5G 앞선다고 하는데 5G 시대에 이런 IT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전반이 마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회장은 “맨홀과 전신구는 KT가 책임지고 직접 관리한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명인 장관은 “약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피해가 삶 전체, 국가 시스템까지 가는 만큼 통신 3사와 직간접 보상·배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KT 통신구 화재사고에 관한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KT의 자료가 부실하고, 전체회의에서 답변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산업부 전국 7개도시 순회 산업정책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부터 전국 7개 주요 도시를 돌며 올해 산업정책을 설명하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제조업 혁신, 규제샌드박스, 수출 지원 등 지역 활력 제고 정책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설명하면서, 지역 주력 산업과 관계가 높은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지원 전략 및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생산시스템 혁신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거점기관 지원, 광역협력권 산업육성, 산업단지 혁신 등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1조3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먹

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R&D) 등에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의 성장판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김치 수출 20% 증가... 1억 달러 육박

농식품부, 작년 9750만 달러 기록
68개국에 수출... 日 수출 23% 증가

지난해 우리 김치 수출이 약 20% 이상 증가하며 수출액이 1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김치수출액은 9750만 달러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치 수출국가수도 2017년 63개 국에서 2018년 68개 국가로 늘었다. 특히, 일본 수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600만 달러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그다음으로 미국, 대만, 홍콩, 호주 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정부의 김치수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지원정책이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년 1월, 영국 가디언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소개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코리아김치페스티벌’과 한국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내용이 일본 NHK를 통해 소개되면서 일본 김치 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광주 북구청 신규공무원과 어린이들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체험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김치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폭염 등으로 인한 김치 원료공급의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 등 녹록치 않은 국내외적 여건에서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는 김치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도록 김치 품질 및 포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수출김치 상품화 지원 등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마트·상점·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실태 점검

산업부, 설 앞두고 물가안정 앞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마트, 상점·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점검반은 설 제품,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

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공공기관, 2.3만명 신규 채용

전년 채용계획 대비 2% 증가
한국철도공사 1855명으로 최다
한진>충남대병원>진보공단 順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23,307명' 채용인원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

순번	기관명	정규직채용	일반채용	고졸채용
1	한국철도공사	1855	1855	0
2	한국전력공사	1547	1347	200
3	충남대학교병원	1428	1428	0
4	국민건강보험공단	844	754	90
5	부산대학교병원	789	789	0
6	전남대학교병원	652	652	0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12	612	0
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43	543	0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62	462	0
10	근로복지공단	450	450	0

자료/인크루트

공공기관 361곳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2% 증가한 2만330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이 1855명으로 가장 많았다.

16일 인크루트가 기획재정부의 '한눈에 보는 2019 공공기관 채용계획'에 소개된 361개 기관의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35곳에서 6660명, 준정부기관 96곳에서 6990명, 기타공공기관 230곳에서 9657명을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채용계획(2만 2876명)에서 2%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합계는 총 2만2734명으로, 4/4분기 신규채용 최종 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의 채용을 예고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올해 1855명의 정규직 채용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1600명, 2017년 1091명에 이어 해마다 채용 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 16%가량 증가할 수 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586명에서 올해 1547명으로 전체 2위에 랭크됐다. 2017년 1271명에서 지난해 24.8% 늘어난 채용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계획치는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채용규모가 3번째로 많은 ▲충남대병원은 올해 총 1428명을 채용할 예정이

다. 이는 2017년 247명, 2018년 544명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844명) ▲부산대학교병원(789명) ▲전남대학교병원(652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612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543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462명) ▲근로복지공단(450명) 순으로 2018년 정규직 예정 채용 순위 톱10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신규채용 규모 상위 기관 중 고졸 채용을 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2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90명) 두 곳이다.

한편, 올해 채용 계획을 발표한 기관들을 36개 주무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부 산하 기관이 총 5626명(전체의 2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4093명(17.5%) ▲국토교통부 3999명(17.1%) ▲보건복지부 2784명(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55명(5.3%)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5억년전 무산소 지구 미생물 생태 규명

심민섭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하는 개별 효소들의 역할에 주목해 첫번째 환원효소의 반응속도가 가벼운 동위원소의 경우 무거운 동위원소와 비교해 2% 빠른 것을 확인했

서울대는 지구환경과학부 심민섭(사진) 교수가 주관하고 동경공립대학 손맥글린 교수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황산염을 이용한 무산소 호흡의 필수 효소가 남기는 화학적인 기록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광합성이나 화학합성 생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 확보한다. 인류를 비롯한 동물은 호흡을 통해 유기물을 산화시키고 산소 환원시키는 반면, 미생물은 산소 대신 황산염이나, 질산염, 산화철 등의 물질을 환원시키는 무산소 호흡도 가능하다.

미생물 활동이 남기는 화학적인 화석 중 하나는 같은 성질을 지니지만 질량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동위원소 사이의 비율 변화이며, 황산염환원을 통한 무산소 호흡 또한 황 동위원소 조성을 변화시킨다.

지구 형성 이후 무산소 환경이 지속되었던 20억년 동안 미생물은 생명과 지구의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삼엽충이나 공룡과 같이 물리적인 화석기록을 남기기 어려워 이들의 활동은 주로 화학적인 기록을 통해 연구된다.

심 교수 연구팀은 황산염환원에 참여

고, 이를 기준으로미생물의 활동이 동위원소 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제안했다.

현재 생물에 의해 일어나는 황 동위원소 조성 변화는 대부분 이번 연구결과보다 큰 경향을 보이지만, 25억년 보다 오래된 퇴적암의 황 동위원소 조성은 이보다 작은 값을 지시한다. 이는 당시 해양 환경에서 황산염환원 미생물이 유기물을 호흡에 현재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현재의 0.001% 미만에 불과했던 25억년 이전의 지구에서는 산소를 이용해 호흡하는 생명체들의 활동이 어려웠고, 그 결과 황산염환원 미생물들이 현재보다는 유리한 생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 1월 10일자로 게재됐다. /한용수 기자

학생의견 반영한 '편안한 교복' 만든다

서울시교육청, 추진단 권고 반영

내년 서울시 소재 중·고교 교복 형태가 학교별로 학생 의견 50% 이상이 반영돼 정해진다. 교복의 디자인과 소재, 패턴 등을 정할 때 학생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교복을 아예 폐지할지도 논의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1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추진단·단장 김중욱)'으로부터 제출받은 권고안을 수용해 2019학년도 1학기 중 서울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교별 공론화가 추진된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 권고에 따라 각 학교는 상반기 중 교복의 형태와 디자인 등에 대해 학생 의견 50% 이상을 반영해 2020학년도 교복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공론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돕기 위해 '공론화 매뉴얼',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를 제공하고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교복 관련 학적 제·개정위원회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쳐 그 내용을 발의하고,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추진단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석자 231명을 대상으로 교복 형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지정 생활복'(45.8%)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기존 교복 개선'(22.2%), '교복 자율화'(17.3%), '상의 지정 교복·하의 자율'(10.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 공론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정 생활복'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정 생활복은 점퍼나, 후드 집업, 반바지 등 다양한 형

태나 디자인의 케주얼 복장으로 상당수 서울 중·고교의 일률적인 형태나 소재의 교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계절별 교복 착용시기가 학생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동절기 교복 외 방한용 덧옷이나 조끼 등의 착용여부나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도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편안한 교복 도입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두발에 대한 공론화에 따라 염색이나 파마 등 두발 관련 학교규칙이 도입될 전망이다. 편안한 교복은 하반기 학교 주관구매 절차를 통해 2020학년도에 도입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개성 신장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다"며 "두발, 복장 등 학생의 용모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해 중·고등학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용수 기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으로 투명한 운영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부터 도입
내년 전면시행 대비 지원방안도 마련

폐원을 신청했거나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매주 증가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3월부터 대형 유치원에 도입된다. 사립유치원 단체 위주로 에듀파인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얼마나 많은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개원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업무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사용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도록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자료/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사립유치원 사용자 매뉴얼도 이달 말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 절차의 추진 시기를 고려해,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은 2월 중순부터 개통하고, 수입관리·지출기능은 유치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0년 3월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도 마련된다. 에듀파인 전문 인력 90명 내외를 대표강사로 지정해 이달 말부터 5개 권역으로 찾아가는 대표강사

연수를 실시하고, 2월부터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2월부터 운영해 상시 업무지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2월 중순부터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해 '0079 콜센터'를 운영, 에듀파인 시스템 오류 처리나 응용소프트웨어 장애 모니터링 등의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과 소통해 에듀파인을 지속 점검·개선하고 내년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최고의 목재인 느릅나무를 엄선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우리 정서에 맞게 디자인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원목가구입니다.

우리결 자연가구



전국 대리점 모집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4 백상빌딩 6F
T. 02-3665-1731 / F. 02-3665-3243
WWW.WOORIGGOL.COM

- ▷ 오래 사용할수록 손맛을 더하는 친환경 가구입니다.
- ▷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줍니다.
- ▷ 제품의 전후좌우 내부까지 마감처리가 뛰어납니다.
- ▷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건강한 실내공간을 만들어줍니다.
- ▷ 느릅나무 소재의 탁월성으로 자연스러운 무늬결과 고풍스러움을 연출합니다.



현대모비스, 장애 인식개선 동화책 배포

현대모비스가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공공어린이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2450 곳에 장애 인식 개선 동화책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장애 아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인식 개선 도서 시리즈 '함께하는 이야기'를 발간해 지금까지 1만권의 동화책을 배포했다.

올해 발간한 동화 '학교잖아요?'는 새로 지은 아파트 옆 공터에 대형마트 대신

특수학교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갈등을 겪는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내건 '특수학교 설립 반대' 현수막의 '반대' 글자를 '한대'로 바꾸는 감작한 계획을 실행해 옮기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교육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그린다.

/정연우 기자



이마트,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

이마트가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캠페인 10주년을 맞아, 2019년 점포내 일회용 비닐/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에 나선다. 이마트는 2019년 안으로 롤비닐 비치장소와 비치량을 줄여 사용량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시킬 방침이다. 이마트 자원순환 캠페인을 기념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 네번째), 이갑수 이마트 사장(왼쪽 세번째), 정환성 이마트 성수점장(왼쪽 두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마트

현대약품 제 115회 아트엠콘서트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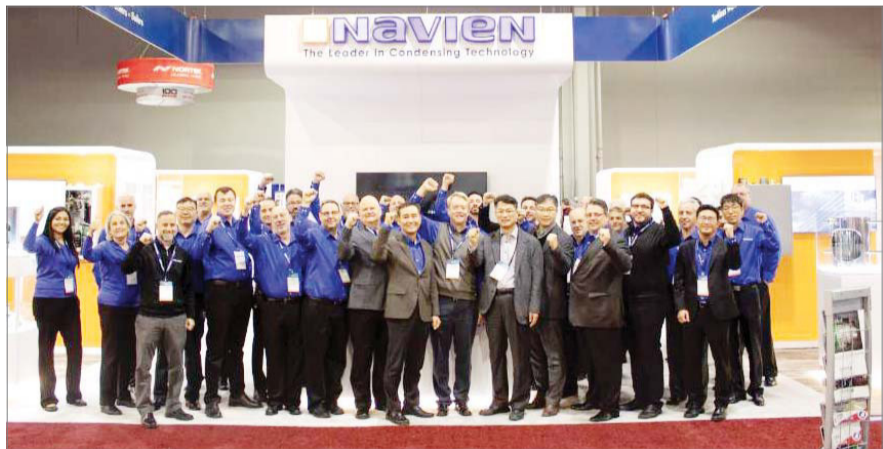
현대약품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아마하 뮤직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제 115회 아트엠콘서트 '2019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년음악회의 주인공은 클래식계 어벤저스라 불리는 'Club M'으로 피아니스트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비올리스트 이신규, 첼리스트 심준호, 오보이스트 고관수 등 국내외 최정상급 실력과 아티스트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생애 마지

막 작품인 인터메조 118번, 서정적인 선율의 아우구스트 클룩하르트의 5개의 갈대밭의 노래, 현악 2중주로 편곡한 헨델,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벤저민 브리튼의 오보에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환상곡,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까지 풍성한 스트링과 오보에, 피아노로 구성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경동나비엔, 美 2019 AHR EXPO 참가

경동나비엔이 북미시장을 추가 공략하기 위해 고삐를 단단히 죄고 나섰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14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아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 월드 콘그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최대 냉난방 설비 박람회 '2019 AHR EXPO'에 참가해 콘덴싱보일러와 온수기 제품 등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



하이트진로, 아이린과 함께한 참이슬 광고 공개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모델 아이린과 함께 새로운 광고를 제작하고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광고캠페인은 '소주는 깨끗하다 - 이슬같은 깨끗함, 참이슬'이라는 슬로건 아래 참이슬 본연의 '깨끗한' 맛과 이미지를 강조, 오늘부터 IPTV,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별 볼일 없는 하버드 출신?



진성우 소장의 심리카페

몇 년 전 필자는 친구가 CEO로 있는 회사의 연구 담당 책임자로 2여년 정도 일을 했다. 일종의 유전자 분석회사였는데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생활을 접고 의료 관련 사업을 하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관련 업무로 일을 했다. 그때 지인의 회사에서는 두 명의 외국 명문 대학 출신의 직원이 있었다.

한 명은 하버드 대학 MBA 출신이었고, 또 한 명은 코넬대 MBA 출신이었다. 한 친구는 우수한 성적 때문인지 대학원까지 조기 졸업한 뒤 취직하였으며 한 친구는 외국 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애널리스트 일을 하다가 어떤 인연으로 지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이다.

필자 주위에도 외국 유학한 후배들이 몇몇 있어 대학의 외국 분위기는 알고 있었지만 세계에서 톱 수준에 들어간다는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들의 인재들과 일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나름 호기심이 많았다.

그들에 대한 첫 일을 한 느낌은 '뭉 별

거없군...'이었다. 외국대학에서 졸업을 했으니 영어 같은 언어 능력 말고는 그냥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 출신 직원들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물론, 이 직원들을 내가 너무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다. 그러다가 직접 부딪혀 경험해보니 '대단한 인재들은 아니네'라는, 실망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같이 일했던 한국 대학을 나온 직원들과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그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내적인 열등감이 없어 보였다.

특히 회의나 비즈니스 논의 중에 보이는 모습들은 자신이 가지는 프라이드가 어떻게 간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타인의 의견과 비판을 잘 구분하고 거기에 감정적인 반응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어떤 대학 어떤 과 출신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모르면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이야기 하면서 타인의 말도 감정적이나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일을 하기 매우 편한 느낌을 받았다. 다시 말해, 자신이 모르면 물어보고 힘들면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

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고, 간혹 열등감을 느낄 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들을 대하는 주변의 태도도 매너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인성적인 요소가 작동하는 듯하였다.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데 있어 인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성숙된 사회성을 가진 어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측면이지만 이러한 어른스러운 실제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갖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로 젊음이 가지는 유연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그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는 하다.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과 관련되어서 해야 할 일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성과 인간성이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동국제강, 초중고교생 대상 장학금 신설

올해 90명에 4500만원 전달 예정

동국제강과 산하 송원문화재단은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 대상 장학금을 신설하며 장학 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송원문화재단은 부산지역에서 협약을 맺은 5개 고등학교 학생과 부산남구 지역 복지센터에서 선발한 초등, 중등생 포함 총 90명의 학생에게 올해 4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지난 2004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9개 대학 14명의 이공계 대학생에게 총 1억6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송원문화재단은 16일 경북·울산 지역에서 선발한 5명의 이공계 대학생을 포함공장에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5일에는 부산공장에서 장학금 전달



동국제강은 16일 최상영 포항공장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산하 송원문화재단 정복용 사무국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송원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공계 대학생 5명을 포함공장으로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국제강

식을 진행했으며 이후 17일에는 당진공장, 21일에는 인천공장 순으로 각 지역 이공계 3학년 학생 총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장학생 전원에게는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졸업 후 동국제강 취업

희망 시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장학생 개인에게는 같은 학교 출신의 동국제강 임직원을 멘토로 지정해 현업에서의 실무 소개 등 향후 진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인사

- ◆ 한국교직원공제회 ◇ 1급 승진 △ 금융투자부장 한양식 △ 정보시스템부장 김철오 △ 기업금융부장 고재택 △ 부산지역본부장 김재구 ◇ 2급 승진 △ 대체투자부 대체투자3팀장 오상원 △ 미디어소통부 홍보기획팀장 이병민 △ 전라북도지부 사무국장 정태영 △ 정보시스템부 IT운영2팀장 정창규 △ 감사실 감사팀장 이동현 △ 부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김상진 ◇ 1급 전보 △ 미디어소통부장 김정태 △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조규백 △ 보험사업부장 박종배 △ 경영전략기획실장 전영봉 △ 경영지원부장 이미경 △ 대구지역본부장 임익순 ◇ 2급 전보 △ 경기도남부지부 사무국장 정성욱 △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장 권진현 △ 정보시스템부 IT기획팀장 김홍진 △ 보험사업부 영영기획팀장 박형석 △ 미디어소통부 미디어운영팀장 윤석완 △ 회원복지부 문화복지팀장 오진봉 △ 보험사업부 기획계리팀장 문대원 △ 사업운영부 사업체지원팀장 염홍필 △ 경영지원부 인력개발팀장 이상목 △ 경영지원부 재무관리팀장 박충훈 △ 정보시스템부 IT운영1팀장 심광업 △ 대체투자부 대체투자2팀장 이재창 △ 금융투자부 해외금융팀장 송상훈 △ 기업금융부 기업금융1팀장 류영학 △ 공제사업부 수납관리팀장 박기원 △ 경기도북부지부 사무국장 서근택 △ 회원복지부 고객지원팀장 신동현

- ◆ 동양생명 ◇ 승진 △ 투자팀장 오예구
- ◆ 라인건설 ◇ 주택문화본부 부사장 김용원 △ 협력관리본부 이사대우 이석현 △ 경영지원본부 이사대우 오성민
- ◆ 한국환경공단 ◇ 신규 임용 △ 감사 유성찬
- ◆ 한국장학재단 △ 상임감사 김준배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기획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규호 △ 공보문화과장 직무대리 서윤기 △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 운영지원과장 정형섭
- ◆ 제주대학교 ◇ 사무관급 △ 총무과장 강병근 △ 국제교류본부 행정실장 강철승 △ 공과대 이창기 △ 해양과학대 서영진 △ 인문대 강태영 △ 생명자원과학대 고태규
- ◆ 소년한국일보 △ 콘텐츠 제작과장 박성태

부음

- ▲ 이철만씨 별세, 이연성·주영·기영(영우디지털 부장)씨 부친상, 정해봉(SK브로드밴드)·탁용원(아프로서비스그룹 홍보담당 임원 겸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단장)씨 장인상 = 16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31-900-0444

- ▲ 최순애씨 별세, 박동식(서울노원중 교사)·도식(자영업)씨 모친상, 강건택(연합뉴스 차장대우)씨 외조모상 = 16일 오전 3시 30분, 서울 한일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70-4888-1694
- ▲ 강옥순(가말리)씨 별세, 김미숙(경기방송 KF M 미디어 대표)씨 모친상 = 15일 오후, 당진장례식장 무궁화 특1호실, 발인 18일, 041-354-4444
- ▲ 정종희씨 별세, 김한근(부경권대사료연구소장,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 콘텐츠자문위원)씨 모친상 = 15일, 부산전문장례식장 103호, 발인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연락공원, 051-312-4444
- ▲ 정갑순씨 별세, 공영도(금융감독원 자금세탁 방지팀장)·공영근(한국수력원자력 조직개발팀장)·공정해·공미숙·공남희씨 모친상, 류경배·송성근(대명여고 교사)·장원만(경희태을한의원장)씨 장모상 = 15일, 부산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51-464-5858
- ▲ 이분남씨 별세, 김명환(KBS대구방송총국 앵커)씨 장모상 = 15일, 울산 영락원 302호, 발인 17일 오전
- ▲ 전순란씨 별세, 조현철(회사원)·현구(농업인)·현창(영남일보 제작국 차장)·현석(경북일보 뉴미디어국장)·현동(경안산업 대표)씨 모친상 = 15일 오후 4시, 안동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7일 오전

주차장 1400억... 온누리상품권 1800억... 백종원식 컨설팅

중기부 올 전통시장 5370억 지원

전년 보다 예산 1616억원 증액
주차장보급률 100% 달성 목표
노후시설 현대화 등에 1236억

정부가 2022년까지 전통시장내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올해 14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다.

특히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해 수수료 등에 18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기로 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통시장내 복합청년몰이 주변 상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지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16억원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해 전통시장 사회간접

(2019년도 전통시장 주요사업별 예산 및 지원 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지원 내용	지원계획	'19년 예산(원)
시설 현대화	공용주차장 건립·개량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100곳	1423억7300만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430곳	1236억8700만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 파악·제거를 위한 점검	433곳	24억5800만
	개별 점포별 화재감지 및 알림시설 설치	23,500점포	131억7500만
	화재피해 보상으로 조속한 생업복귀 지원	-	9억9000만
	개별점포의 전선을 정비해 화재예방	57곳	90억9600만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지원	청년점포 및 고객 휴게공간 등이 집합된 청년몰 조성	5곳	37억
	청년상인에게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지원	270명	27억
	전통시장 유희점포 활용 청년상인 창업지원	13곳	37억
	대학인프라를 활용해 공동에과과제 해결	7곳	16억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전통시장의 입지·역량을 감안 시장별 특색 발굴	신규 100곳 계속 75곳	361억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 환경개선 테마공간 조성 등 자생력 확보를 지원	신규 5곳 계속 3곳	29억4000만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발행	-	1771억6400만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전통시장상점가는 부여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 지원사업을 선택운영	340곳	165억
조사 및 평가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 방향 설정	-	8억6300만
합계			5370억4600만

자본(SOC)을 확충하고 복합청년몰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상인 주도형 체제로 전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생

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해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고, 그동안 한 번도 지원 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대상으로 지

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올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1423억원, 시설 현대화에 123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보급률을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에는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45곳을 포함해 개보수 등 109곳을 지원한다.

124억원을 들여 전국 16곳에 전통시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게스트하우스나 빈 점포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1771억원으로 책정됐다. 단일 사업 분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복합청년몰도 활성화한다. 입지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폐공장, 농협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조합형 공동창업, 창업전문기업 연계 창업보육센터형 청년몰 등 신개념 청년몰을 도입하고 지역 사회

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영업환경의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 상인에게 '백종원식' 컨설팅을 도입하고 성공 상인의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사후 지원도 확대한다.

이러한 지원은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체제로 바뀐다.

중기부는 특히 상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야와 기관을 고르는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이 주어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선택, 운영하는 방식이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 특성화 사업 결과물의 유지·관리 실태, 지자체와 상인회의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후 사업 참여를 우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12회의 지역 순회 설명회를 오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신라인터넷면세점, 겨울방학 특수 '톡톡'

18~25세 매출 증가율 다섯배 높아

신라면세점은 최근 만18~25세 고객(이하 1825 고객)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825 고객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인 12~1월에 해외여행을 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인터넷면세점 신규 회원 가입자 수와 해당 연령대의 매출도 크게 증가한다.

신라인터넷면세점에 따르면, 국내물 기준 1825 고객의 겨울방학 기간 매출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 모두 전월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 고객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다섯 배 이상 높은 수치다.

1825 고객들은 스킨 케어 브랜드보다

는 '팩', '나스', '베네피트', '입생로랑' 등 수입 색조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지난해부터 고객 맞춤형 멤버십 서비스 '라라클럽'에 1825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꿈꿔라 클럽'을 운영하며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꿈꿔라 클럽 고객은 상품 구매 시 1% 추가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이달 20일까지 꿈꿔라 클럽 회원에게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라라캐시' 1825원을 증정한다. 함께 여행 가는 친구를 등록하면 적립금 3만원을 증정하고 등록된 친구와 본인의 합산 쇼핑 금액에 따라 ▲CU 스타벅스 더블커피 2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기프티콘, ▲CGV 영화예매권 2장 등을 증정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코웨이+웅진렌탈... '웅진코웨이' 3월 출범

인수·브랜드 先 통합 後 합병
재무적 투자자도 경영참여키로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렌탈과 코웨이가 만난 '웅진코웨이'가 3월 본격 출범한다.

웅진이 앞서 재무적 투자자(FI)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MBK파트너스가 갖고 있는 코웨이를 인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인수와 브랜드 통합을 먼저 한 뒤 시차를 두고 합병하는 구조다.

아울러 웅진은 웅진코웨이 출범 이후 스틱인베스트먼트를 경영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웅진 관계자는 16일 "웅진의 렌탈사업부인 웅진렌탈과 코웨이를 합친 '웅진코웨이'가 오는 3월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웅진그룹은 또 스틱도 경영에 일부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스티크는 웅진씽크빅 전환사채(CB)인수 방식으로 3700여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재무적 투자자로 웅진씽크빅과 코웨이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웅진 관계자는 "스티크가 참여 당시부터 장기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오기로 한 만큼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순 없다"며 "다만, 투자자인 스틱이 재무책임자 등 임원 한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부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웅진은 시장에서 제기되는 자금 우려에도 그룹 역량을 웅진씽크빅과 코웨이에 집중해 현금창출능력을 강화해 인수 금융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더 실감나게'... 롯데월드 VR 콘텐츠 6종

'VR SPACE', 콘텐츠 리뉴얼 도입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6종의 신규 콘텐츠를 도입한 'VR SPACE'를 리뉴얼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도입한 콘텐츠는 슈팅 VR인 '블랙울프', '타워태그', '시그널'을 비롯해 방탈출 VR '더 도어', 아케이드형 VR '쥬시팡팡'과 시뮬레이터 VR인 '레이싱 VR'까지 이색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

신규 슈팅 VR의 경우 세 종류 모두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 명이 함께 즐기는 '블랙울프', 동시에 네 명까지 이용 가능한 '타워태그'와 '시그널' 등이다.

중동 사막에서 납치된 인질을 구하는 '블랙울프', 암흑공간에 세워진 타워 사이에서 순간이동을 하며 팀별 배틀을 펼치는 '타워태그', 리프트를 탑승해 이동하면서 정체불명의 괴물을 물리치고 동료대원을 구하는 '시그널' 등 탄탄한 스토리와 콘텐츠의 연출력은 게임의 몰입도



레이싱 VR. /롯데월드 어드벤처

를 높여준다.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탈출에 VR을 입힌 이색적인 콘텐츠도 마련했다. '더 도어'는 두 명이 함께 협력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형식이다.

슈팅 VR과 방탈출 VR의 경우 HMD 기기에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 게임을 함께 즐기는 상대방과 안정적인 음성 채팅이 가능하다. 'VR SPACE'에 새로 도입한 VR 콘텐츠들은 온라인 게임처럼 참여자간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깨끗하고 맛있는 물 위해... '물 맛 연구소' 개소

코웨이 물 관련 연구원 45명 소속

코웨이가 '물맛 연구소'를 열고 맛있는 물 만들기에 나섰다.

코웨이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코웨이 R&D센터에 '물맛 연구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코웨이 물맛 연구소는 '깨끗하고, 맛있는 물'에 대해 연구하고 정수기 물맛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물맛 연구소에는 한국국제수질협회, 한국수자원공사 공인 워터소플리어와 미국수질협회(WQA) 공인 물전문가(CWS) 등 물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코웨이 연구원 45명이 소속돼 활동할 예정이다.

코웨이는 2009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물맛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2011년에는 국내외 물맛 연구를 바탕으로 물맛의 방향성을 수립했으며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코웨이만의 간간한 물



코웨이가 새로 문을 연 '물맛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코웨이

맛 기준인 'GPT 지수'를 수립해 제품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또 물맛 관능 평가 및 관능 평가 전문 통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물맛 전문 패널을 양성하는 등 물맛 연구에 대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국제수질협회회가 실시한 '국내 주요 정수기 물맛 비교 테스트'에서 1위를 차

지하기도 했다.

코웨이는 향후 물맛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수기 물맛 특성 정의 ▲정수기 필터 성능에 따른 물맛의 연관성 과학적 입증 ▲정수기만의 맛있는 물맛 기준 수립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물맛 연구소에서 연구한 핵심 성과들은 코웨이 정수기 및 필터 개발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선글라스 낀 물고기' 살아있는 동화 만든다

SK브로드밴드 'Btv' 동화 공모전 열어... 콘텐츠로 제작

SK브로드밴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B tv 살아있는 동화 크리에이터(Creator)!' 공모전 시상식을 1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B tv 살아있는 동화 크리에이터!' 공모전은 아이와 보호자가 한 팀을 이뤄 동화 이야기를 작성하고 아이가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참여하는 가족 이벤트다. 총 상금은 700만원이다.

대상은 '선글라스 낀 물고기'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별님을 만드는 황금토끼' '떡보쟁이 블랙홀'이 선정됐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인기상은 '파란눈개미의 정글 여행' '내 별명은 외계인'이 수상했다. '선글라스 낀 물고기'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항상 밤인 줄 알



대상을 받은 선글라스 낀 물고기. /SK브로드밴드

고 잠자던 물고기를 위해 바닷속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받은 남윤영 고객은 "막내가 그린 그림에 첫째 아이가 이야기를 붙이고 남편도 거들면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모전 참여 고객들은 바다, 정글, 우주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동화 스토리를 만들고 아이가 직접 그린 동화 장면을 제출했다. 이 작품들은 본선에서 동화 전문가로 이루어진 멘토단의 조언을 거쳐 완성됐다.

SK브로드밴드는 본선 진출작 10작품을 지난해 11월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 B tv 키즈 부스에 전시했고, 부스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기 투표를 진행했다. 또 본선 진출 고객들을 유아교육전에 초청해 멘토와의 시간도 마련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으며, 수상작은 살아있는 동화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다.

살아있는 동화는 동화 속 캐릭터의 얼굴에 3D로 분석한 아이의 얼굴이 덧씌워져 아이들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동화 스토리를 익힐 수 있는 B tv의 서비스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케어 '안락사 논란'의 쟁점



기자 수첩

김 유 진
(산업부)

국내 대표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유기견을 구조하고 안락사를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이같은 행동에 후원자들은 물론 유기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적잖이 놀란 분위기다.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안락사 문제에 이어 '마취 안하고 약물을 주입했다', '사체를 수의대 해부용으로 기증했다' 등의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오랫동안 유기견에 관심을 가져온 기자는 대학생 시절 박소연 대표를 서울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만났다. 그는 당시 보호소에 있던 몇 마리의 유기견을 보여주면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유기견들이 있어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부터 적극적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후로도 기자는 케어의 유기견 구조와 입양을 준비하는 운영 과정을 SNS에서 지켜봤다.

박 대표의 가장 큰 실수는 안락사를 후원자들에게 감쪽같이 숨겼다는 사실이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케어 외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은 많지 않은 후원금으로 매일같이 유기견과 투기견을 구조하고 사료를 먹이면서 동물들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비영리 단체의 손길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유기견이 매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호단체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박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건강하고 어렵고 입양확률이 높은 유기견들에게 더 손길을 주고 반대로 병이 들고 노쇠한 유기견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정말 잔인하게 도축돼서 식용으로 팔려가는 유기견들의 삶을 아는 대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안락사 논란은 한 동물보호단체의 실수만이 아닌 대한민국 동물보호실태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단편적인 이번 사례로부터 적극적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후로도 기자는 케어의 유기견 구조와 입양을 준비하는 운영 과정을 SNS에서 지켜봤다.

/ujin6326@metroseoul.co.kr

현대백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4924억 조기 지급

현대백화점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 협력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급여 및 상여금 등 각종 비용 지출이 늘어나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기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등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7200여 협력사의 결제대금 4924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기 지급되는 협력사는 현대백화점과 거래 중인 2600여 곳을 비롯해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신·현대G&F·현대리바트·현대FCN·현대백화점면세점·에버다임 등 10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4600여 곳 등 모두 7200여 업체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추석 4400여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4705억원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들 중소 협력사의 결제대금을 정상 지급일(백화점 1월 30일·그 외 계열사 1월 31일)보다 최대 6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오는 1월 25일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직원 상여금 등 각종 비용 지출이 늘어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협력사들의 위해 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운세 1월 17일 (음 1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해 저무는 강가에 서 있는 기분. 60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72년생 마음이 상하고 몸은 힘드나 재물은 얻는다. 84년생 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신임을 잊지 마라.	 말	54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이랑을 베풀자. 66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78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주의. 90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이 또한 좋다.
 소	49년생 친구가 나를 곤경에 빠뜨린다. 61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얻기 좋은 날이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73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힘든 일을 처리. 85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니 말조심하자.	 산	55년생 다름이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67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지만 현상유지가 최선. 7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9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호랑이	50년생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진다. 중용을 지켜라. 62년생 항상 태양은 떠 있음을 잊지 말고 살라. 74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해결. 86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원숭이	56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가 크나 실리는 없다. 68년생 변동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 80년생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금물 해야. 92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토끼	51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3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75년생 공기가 맑으니 여행을 떠나보자. 87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닭	57년생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물을 먼저 준비. 69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허물도 튀어나오니 주의. 81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자. 93년생 결과만큼 노력하는 과정도 중요.
 용	52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라. 64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이다. 76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88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운이 들어온다.	 돼지	5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 70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주변에 속상할 일이 생긴다. 82년생 예의 바른 행동은 어딜 가나 대접받게 한다. 94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을 수.
 뱀	53년생 격한 언쟁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결과. 65년생 장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하루. 77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89년생 갑자기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돼지	59년생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71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83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는 격이니 이익이 많은 날. 95년생 귀찮고 심드렁하겠으나 불평마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4		3			
1				2				4
	3			4			1	
		4	5		6	2		
	9			1			6	
8				3				7
			6	4				
		9		5		1		

		5		8			2	
2					9			6
		1					8	
	3			7			9	
9			3		1			7
			5	2				8
			2				4	
4			1					5
	1			5				3

스도쿠 정답

9	7	1	8	5	2	6	4	3
6	8	3	7	9	1	5	2	4
2	5	6	4	3	8	9	7	1
8	9	7	1	5	2	6	3	4
3	6	2	9	8	5	7	1	4
5	1	4	2	7	6	8	3	9
7	6	5	2	8	3	9	1	4
1	5	8	9	7	4	2	6	3
4	2	9	1	6	4	5	8	7
6	3	9	7	5	2	1	8	4
5	4	2	8	6	1	9	7	3
8	1	7	4	9	2	6	5	3
3	8	1	9	2	6	5	7	4
4	9	5	1	7	8	3	2	6
2	7	6	5	4	8	9	1	3
7	6	8	2	9	5	1	4	3
9	5	4	6	1	3	7	8	2
1	2	4	8	7	6	5	9	3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四季

세상과 다투지 마라

새해 벽두부터 슬픈 소식들이 들려온다. 희망을 염원하며 여기저기서 설 새 없이 축하인사도 받고 보내기도 하지만 벌써부터 인생사 고해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방송매체나 신문에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온다. 때로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불행이 오기도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인생사 사고나 불행은 어찌해야 하는가. 화의 원인은 탐심인 것은 자명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인 분노이며 화인 것이다.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것도 화의 또 다른 모습이 라고 본다.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수동적인 화의 표출이 우울증이며 슬픔이라고 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화를 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화의 표출을 외부로 할 때는 욕이나 폭력 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화를 내면으로 표출하는 것이 우울증이나 비탄이 되는 것이니 이 역시 세상을 향한 다툼이며 자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화를 냈을 때 가장 먼저 그 화살을 받는 이는 바로 화를 낸 자신이다. 스스로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몸의 세포에는 독이 퍼져 나온다. 화를 냈을 때의 폐해는 여러모로 말할 것도 없기에 석가모니부처님은 화를 내서 유익함이 있다면 나도 화를 냈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유교와 불가에서는 조건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한다. 우연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조건 지어진 행위나 현상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 인과의 조건은 지금 살고 있는 이생뿐만 아니라 이미 전생, 전전 생등 끝도 시작도 없는 수많은 생을 나고 죽고 하면서 인연 지어진 업연의 결과이다. 그렇다고 보면 인생은 답이 없다. 그저 갈 뿐이다. 다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아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행복 하길 바라다면 남의 행복도 존중해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세상과 다투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 반드시 자신의 탓만은 아니겠지만 굳이 스스로를 상처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세상과 다투지 마시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7400206 2002년5월28일 제41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7450111 2017년3월09일 제0226호

국토부 산하기관 CEO 교체 시즌... 하마평 무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들이 차기 CEO(최고경영자) 선임에 나서면서 업계에 하마평이 무성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장 사퇴 및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사장 후보를 찾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일영 사장이 오는 2월 1일 3년의 임기를 마치는데 앞서 차기 사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달 14일 사장 후보 접수를 마무리했으며, 최근 5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임 사장 후보로는 국토부에서 항공정책을 다뤘던 최정호 전 2차관, 여형구 전 2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차관은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 실장 등을 지냈다.

여 전 차관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정계에 선 문학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남

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문 전 위원은 지난 코레일 사장 공모 때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공운위는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후보자 1~2명을 정해 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를 열어 단일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을 선임한다.

코레일도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신임 사장 후보를 모집 중이다. 오영식 전 사장이 지난해 2월 14일 취임해 2년의 임기를 시작했으나, 잇단 철도 사고로 인해 10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면서 차기 사장 후보를 일찍 찾게 됐다.

오 전 사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으



사장 후보 최정호·여형구 등 거론
공운위, 이달 최종 후보 통보 예정



잇단 철도사고로 전 사장 사퇴
전문성 있는 내부 인사도 예상



박상우 현 사장 유임 시각이 우세
3기 신도시 등 관료 인사도 예측

나 아직까지 차기 사장 후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차기 사장 후보자의 '출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차기 사장으로 정계 인사보다는 관료 출신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코레일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해 철도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레일 역대 사장을 보면 신광순 초대 사장과 최연해 6대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도와 무관한 정관계 인사였다.

또 한편에서는 코레일의 최대 과제인 SR 수서고속철도와 통합 등을 고려하

면 철도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내부 출신 인사의 승진도 예상되고 있다.

코레일은 사장 모집 공고가 끝나면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추천을 거쳐 공운위에서 심의·의결 받는다.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중 신임 사장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조만간 차기 사장 인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3년)는 오는 3월 24일자로, 퇴임 쪽으로 거취가 확정되면 이달 내 차기 사장 공모가 시작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박 사장의 유임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사장은 국토부 1급 관료 출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 건설, 도시재생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박 사장이 더 큰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연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등 후속 정책 사업을 맡을만한 관료 출신 인사가 올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LH도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공모 후 임추위 추천, 공운위 의결, 국토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거쳐 차기 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구분	2018년 12월말	2018년 11월말	2017년 12월말	변동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국	3,376	3,304	3,117	2.16%	8.28%
서울	7,398	7,369	6,706	0.40%	10.31%
수도권	5,041	5,024	4,547	0.32%	10.85%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3,594	3,409	3,221	5.45%	11.59%
기타지방	2,614	2,581	2,503	1.30%	4.44%

HUG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 1114만원

전월 대비 2% 상승... 가구수도 늘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전국 민간아파트 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보다 2.2% 오른 33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3.3m²(1평)로 환산하면 약 1114만원이다.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작성기준 월 포함)의 자료를 평균한 최근 1년간의 평균 가격으로 작성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739만8000원(3.3m²당 2441만원)으로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0.31% 올랐다.

수도권은 504만1000원(3.3m²당 1664만

원)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59만4000원(3.3m²당 1186만원)으로 5.5%, 기타지방은 261만4000원(863만원)으로 1.3%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분양이 없었던 울산을 제외하고 10개 지역은 전월보다 상승, 2개는 보합, 4개는 하락했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60m² 초과~85m² 이하가 가장 높은 2.5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60m² 이하 2.35%, 102m² 초과 1.93%, 85m² 초과~102m² 이하 0.52%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는 총 1만3968가구로 전월보다 29.4% 늘었다. 전년 동월(2만3833가구)에 비해서는 31% 감소했다. /채신화 기자

기보

기술력 우수 기업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우수한 저신용도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제도는 기술성,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연체나 체납 등

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기업 가운데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기술력 우수기업이다. 차입금 또는 조세 공과금 50%(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 이상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 BBB 등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소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 머리 맞댄다

중기중앙회·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정부 연구 결과문, 기업인과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모델 토론회'를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가능성과 남북관계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을 주제로 활약하기 위해 과거의 경협 형태보다 더욱 고도화되고 북한과 상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연계하는 남북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그 결과물을 전문가, 기업인들과 논의하는 자리다.

중기중앙회 양갑수 통상협력실장은 "북한의 권역, 지역별, 바람직한 진출 업종과 형태를 제시하고 남북 상생협력차원에서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이재호 중

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을, 안귀산 중국 연변대 교수가 '두만강 지역의 중·북경협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브라이언 마이애스 동서대 교수, 팜 뚜엔 주한베트남 상무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아리향·금실... 농진청, 국산 딸기 보급 확대

품종 다양화로 내수·수출 경쟁력 ↑

농촌진흥청이 최근 소비자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 좋은 국산 딸기 보급 확대에 나섰다.

농진청은 16일 딸기 '아리향'과 '금실', '메리퀸', '베리스타' 등 새 품종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전남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리향은 단단하고 향이 좋으며, 과일 무게가 25g 이상인 대과 생산 비중이 70%를 넘는다.

금실은 평균 당도(11.2브릭스)가 높고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며 무게는 20.5g으로 중대과형 품종이다.

메리퀸은 당도(12.1브릭스)가 높고 열매가 단단하고 형태가 좋아 장거리 수송에도 유리하며, 베리스타는 생산성과 유통성이 좋으며 흰가루병, 탄저병, 응애 등 각종 병해충에 강하다.

이들은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단단한 특성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출 유망 품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국산 딸기 품종 '아리향' /농진청

한편, 이날 최근 5년 간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품종의 특성을 주제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에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농촌진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도입하고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동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딸기 품종을 다양화함으로써 내수와 수출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딸기 새 품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근로복지공단

재해공무원 22명 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공무원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에게 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헌업 복귀를 지원했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2017년 3월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직영병원을 통해 재해공무원에게 본인부담 없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진료계획을 세우고 1대 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직무수행을 위한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복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재해공무원이 재해발생 후 적절한 때에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 재활시스템이 재해공무원의 직업복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감연결
NEWSIS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27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200여개



사진기사. 1200~1500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등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모여 미세먼지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7개도시 연구체계 구축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수도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등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미세먼지 공동연구회’에서 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미세먼지 성분 분석 모니터링 공

동 연구를 실시하는 등 공동 연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7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분기별로 1차례씩 미세먼지 담당 팀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별 미세먼지 분석 자료 공유 ▲모니터링 연구과제 선정 ▲미세먼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공동대응 체계 마련으로 지역별 비교를 통한 정확한 성분 및 원인 분석이 가능, 보다 과학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승열=기자 kimsy@

경기도, 23일 ‘ART&VR’ 전시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예술분야와 첨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VR/AR)을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선 가운데, 관련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광고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ART&VR’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내 VR/AR 기업과 국내 아티스트로 구성된 10개 팀과 협약을 맺고 3개월 동안 제작지원, 멘토링 등 개발과정을 지원해주는 ‘ART&VR’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만져 보세요(Please Do Touch)’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ART&VR’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시해 업계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들도 VR/AR 기반 예술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 외에도 문화예술계 거장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작품세계와 철학을 들여다보는 마스터클래스,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인 아티스트 토크, VR/AR 콘텐츠 개발기업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이 직접 만나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매칭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평택시, ‘청소년 기관 직업체험’ 참가 접수

평택시는 ‘2019 청소년 기관 직업체험’에 참가하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12세 이상 만22세 이하의 사회적 배려 청소년이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가 추진하며, 15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해 19일 최종발표한다. 선정된 48명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5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게 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활동기관에서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 안전놀이기 지원, 청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로비 놀이터 모습. /경기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

소년 활동장 정리정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

전남에 월급받는 농민 생긴다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8개월간 매월 30만~200만원 다음달 15일까지 농협서 접수

전라남도도는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전라남도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자를 해당 시군을 통해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받아, 3월부터 매월 30만~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순천시, 나주시 등 16개 시군에서는 해당 농업협과 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2월 15일까지 농협과 구매약정 후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벼·양파·마늘·포도·감·배·사과·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 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월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다.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농가는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전라남도도는 지난 11일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농협에서 농가에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원 이자율, 도·시군 보조 비율, 지원 규모 및 사업량 등

을 확정했다.

지원 이자율은 시군과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대 5%다. 이자 발생에 따른 도·시군 분담 비율은 도비 15%, 시군비 85%다. 지원 규모는 최대 6000 농가다.

시군에 농업인 월급제 참여 의향을 사전 조사한 결과,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함평군 등 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의 농업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도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바란다”며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영농의욕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드림체크카드’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인천시, 일자리 예산 930억 편성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 지급

인천시가 청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신설 운영하고, 7년 만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재개 등 ‘청년이 살기 좋은 인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930억원으로 편성, 청년들이 인천에 뿌리내리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예산 내용은 창업기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44억원, 예비창업자 지원 드림존 조성(신규) 사업에 34억원, 인천 창업자금 조성 창업성장 펀드(신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다.

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과, 인천 청년 공간 유지기 운영,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등으로 총 148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설한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드림체크카드를 이용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구직활동을 위한 직·간접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최종학년 기준 졸업 2년이 경과한 만 19세~39세 미만 미취업청년으로 올해부터 고용



지난해 11월 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50인 인천시장 청년정책을 말하다 토론회. 인천시

노동부에서 시행예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미취업상태인 청년구직자를 돕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높은 생활비,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드림 For 청년통장’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2년 이상 청년재직자로 계약연봉 2400만원 이하인 39세 정규직근로자가 해당된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시에서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생애 1회 지원한다.

드림체크카드와 드림 For 청년통장 두 제도 모두 2019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신청 중이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4월 말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자 공고와 본격적인 시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2013년부터 중단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재개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한정했던 수혜 대상 범위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일환이다.

기존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저소득가정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서 가구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도 수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수혜 대상자가 1600여명에서 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j@

“지방도 830호선 국도로 승격해야”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장 건의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은 ‘제239회 전남 시군의회의회 회의’에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을 건의했다. 조인호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완도가 포함된 남해안 연안은 천혜의 생태자원과 자연환경

을 갖추고 있어 관광자원을 통해 세계적인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를 조성해야 하지만 도로 등 대규모 토목 공사는 많은 재정이 수반되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기반시설 중 하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에 국도 27호선 기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 830호선(완도 고금도~고흥 거금도 구간 42.4km) 국도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2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전남의 여러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은 물론 인적 물적 교류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적극 공감하고, 이번엔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이재건 기자 wando110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5 | 해질 / 17:39

1월 17일(木) 음력 : 12월 12일

수도권 날씨 -2 ~ 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8/3, 동두천 -6/5, 가평 -7/4, 파주 -9/4, 서울 -2/4, 양평 -5/4, 인천 -1/3, 수원 -1/3, 용인 -1/3, 평택 -3/4, 백령도 0/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금융]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키워드는 '고객 가치'" 08



Life

[공기업] 코레일·인천공항·NH 사장 누구 L4



2022년 '스마트 도시', 서울의 모습은?

미세먼지·소음측정... 500종 도시데이터, 시민 삶 속으로

양천구·성동구 테스트베드 특구 센서 5만개 설치해 데이터 수집 도시데이터 통합해 정책에 활용

서울시가 양천구와 성동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구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 양천구·성동구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2년에는 서울 시내 전역에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시는 향후 4년간 시내 곳곳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개를 설치해 데이터를 수집,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 도시데이터 센서는 미세먼지, 소음, 빛 공해, 온·습도, 풍향·풍속, 차량 속도 등을 측정하는 기계로 가로등과 보안등, CCTV 지주,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다.



서울시가 이달 말 양천구·성동구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유투이미지

시는 센서를 통해 소음을 측정, 허가 시간 외에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최적의 위치에 방음벽을 세운다. 동별 폭염·한파 지도를 제작,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곳에 그늘막 또는 빙판길 열선을 설치한다. 서울 전역의 전자파 지도를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 영유아 시설에서 전자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야간의

빛 데이터를 추적해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151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2022년까지 492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는 연내 1만3000개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5만개로 늘린다.

도시현상을 데이터화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공공정책을 수립·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유통을 활성화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 사업은 ▲스마트 도시데이터 시스템 구축 ▲공공 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530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우선 시는 연내 도시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제별 분류 체계를 만든다. 2021년부터 시의 행정정보시스템 전체 468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공공기관, 데이터 제공 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엄'(가칭)을 출범한다. 생활인구, 미세먼지 등 활용 가치가 높은 빅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고, 이를 가공·분석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오는 2021년

부터 기업 활동과 창업 지원용 빅데이터, AI 기반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는 2020년 전면 개방된다. 시는 지난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동경로, 교통상황 예측 실시간 데이터 등 80개 정보 시스템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 상수도 수질 측정, 건물 DB 등 170개 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2020년에는 스마트카드, 민원상담 등 비식별화가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한다.

그동안 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심야 버스 운행 노선 조정,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SNS에 게재된 불법대부업, 다단계 판매 광고를 식별해내는 인공지능 수사관을 민생범죄 수사에 도입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468개의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도시데이터를 정책에 활용, 행정에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전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교육청과 2단계 업무협약 체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모델 발굴·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 공동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발굴해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칭·지원하는 자치구다.

2015년 11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22개 구로 확대됐다. 올해 강남·송파·중랑구가 참여하면서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단계(2015~2018년)에서 마을-학교 연계 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학



교의 변화(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접목한 학교교육과정 개선) ▲마을의 변화(청소년방과후활동 기반 확대) ▲교육 거버넌스 구축(민·관·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교육 사업 추진)을 이뤄왔다. 2단계(2019~2022년)에서는 민·관·학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모든 혁신교육지구에서 수행해야 했던 필수과제를 없애고 자치구별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는 자치구 당 평균 15억원(시 5

억, 시교육청 5억원, 자치구 5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자치구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배움과 섬을 지원한다.

서대문구에서는 토요일마다 동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해 '토요동 학교'를, 영등포구는 문래창작예술촌 등 지역 거점 공간 20여곳에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했다. 구로구 청소년들은 학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청소년축제를 직접 기획해 운영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문 협력모델로 2015년 첫발을 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는 2단계 도약을 시작했다"며 "아이들이 '맑고 삶'을 즐겁게 배우고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 25개 자치구가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기온이 푹 떨어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희궁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연철뉴스

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단속 나선다

22일부터 연말까지 합동 단속 실시 고광도 전조등 등 불법 튜닝 가장 많아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자치구·경찰 등 관계기관과 시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도 병행한다.



불법 개조 자동차 단속 모습. /서울시

시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650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 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

장 많았다.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가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차량도 합동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역학조사관 임명

감염원인 파악, 확산 막는 전문가 소아과 전문의 김준재 조사관 임명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역학조사관'이 경기도에 정식 임명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전문가로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현재 활동 중인 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 중 1명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아과 전문의인 김준재 조사관(59세 의무 5급)을 지난 9일 역학조사관으로 정식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간 교육은 물론 3주간의 기본교육(1회),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이상)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밖에 도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 발표를 진행해야 하며,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와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를 각각 2편 이상씩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대다수 시·도에서는 2~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정식 역학조사관은 이번에 임명된 김 조사관이 처음이다.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등 의심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환자를 즉시 분류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정감염병 유행 차단 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이 사무관은 수습 역학조사관이었던 지난해 메르스, 홍역, 백일해 등 감염병 발생 당시에도 5명의 동료 수습 역학조사관들과 함께 의료기관 등으로 출동해 감염원 추적 등 현장을 지휘,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나 × LG Objét

프리미엄 프라이빗 가전 LG 오브제



TV | 오디오 | 냉장고 | 가습기/청정기
 하든스페이스 | MERIDIAN technology | 저소음설계 | 쿨나잇케어